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of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제 출 자 : 고희송

지도교수 : 박은실

2010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기획전공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of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기획전공

고 희 송

고희송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2010. 6.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국문요약)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기획전공

고희송

지도교수: 박은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의 전환,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작품이다. 과거 중앙중심의 발전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일방통행방식의 기능 이양이나 권한 위임 정도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을 받았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은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외교,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물적·인적 자원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다. 외자 유치로 통해 관광, 의료, 교육, 1차 청정+첨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산업생산성의 전략 차원에서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국제자유도시는 잡스런 세계문화의 쓰레기 집하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성이 과거처럼 닫혀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할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성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문화 변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 제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바탕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변화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화는 도민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 사항이면서 또한 스스로 창조하고 가꾸어 나가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진흥은 오늘날 사회를 구성한 세 축이 되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모두의 공동의 대상이며 과제가 된다. 특히 문화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토대로 자리매김 되는 만큼 지역적 범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즉 현대사회의 민주화, 지방화, 다원화의 추세는 국가와 지방의 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 이양하여 문화예술이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향유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제주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특별자치도 체제가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에는 문화정책의 답습으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새로운 문화정책 변화의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생활문화로 방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실태조사 그리고 인식분석이라는 세 가지 접근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영역은 소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인간의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문화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는바, 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기능과 문화권, 문화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특성과 범위, 역할을 수도권의 도시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의 주된 범위로 하여 문화관련 조직의 구조와 체계, 지역문화인프라의 조성, 문화행사의 추진 등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주된 대상이 제주도민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할 때, 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여건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성취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향토 및 지역문화예술의 보존과 발전, 개발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방법 .....	2
II.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지역문화정책 .....	4
1. 문화정책의 의의 .....	4
1) 문화정책의 개념 .....	4
2) 문화정책의 성격 .....	5
3) 문화정책의 특성 .....	6
2.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및 환경변화 .....	10
3. 지역 문화정책 .....	12
1) 지역 문화정책의 역할 .....	12
2) 지역 문화발전계획 .....	13
3) 지역 문화정책의 반성과 변화 .....	15
4. 국내외 문화정책 현황 .....	17
1) 문화행정조직 체계 비교 .....	17
2) 지자체 문화예산 비교 .....	18
3) 국내외 문화발전계획 .....	20
4) 광역시도별 문화재단 현황 .....	25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현황 및 인식 분석 .....	29
1.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현황 및 여건 분석 .....	29
1) 문화현황 .....	29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여건분석 .....	49
2.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에 관한 인식분석 .....	57



1) 조사개요 .....	58
2) 조사결과 분석 .....	60
3) 분석결과의 종합 논의 .....	66
<b>IV.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b>	<b>68</b>
1. 문화정책의 방향 .....	68
2. 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 .....	70
3. 문화정책의 이행에 따른 과제 .....	73
1) 문화행정조직의 체계화 .....	73
2) 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	74
3) 문화재정 확보 .....	75
4) 문화창작 인프라의 확대 .....	76
5) 문화 광역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충 .....	77
6) 문화예술교육 강화 .....	77
<b>V. 결론 .....</b>	<b>79</b>
부록(결과 분석표) .....	82
참고문헌 .....	97
Abstract .....	99

##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변화 .....	11
<표 2>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	16
<표 3> 문화행정조직의 비교표 .....	17
<표 4>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현황 .....	18
<표 5>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 .....	19
<표 6>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 .....	19
<표 7> 서울 창의문화도시 주요내용 .....	20
<표 8>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체계도 .....	21
<표 9> 성남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주요내용 .....	22
<표 10> 일본 치바시 문화예술진흥계획 주요내용 .....	23
<표 11> 일본 삿포로시 문화예술기본계획 주요내용 .....	24
<표 12> 공 혹은 공공부분의 문화 거버넌스 .....	26
<표 13> 전국 지역문화재단 현황 .....	27
<표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변화 추이 .....	29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조직 및 인원 현황 .....	30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조례 및 규칙 .....	31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련 재정 현황('07년도~'10년도) .....	32
<표 18> 연도별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역(정기지원) .....	34
<표 19>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원사업 현황(2009년도) .....	34
<표 20> 문화시설 운영현황 .....	35
<표 21> 박물관 운영현황 .....	36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도서관 현황 .....	37
<표 23>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	38
<표 24>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연시설 현황 .....	39
<표 25>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시시설 현황 .....	39
<표 26> 전국대비 제주 문화기반시설 현황 .....	40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단체 현황 .....	41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인 현황 .....	42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연 현황 .....	43
<표 3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전시 현황 .....	44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 .....	44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	45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내 예술관련 학과 현황 .....	46
<표 34>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일정 .....	48
<표 35> 2008 제주특별자치도 내 축제 현황 .....	49
<표 36> 제주문화의 SWOT 분석 .....	50
<표 37>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세부내용 .....	52
<표 38> 응답자 특성별 분포 .....	59
<표 39>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 .....	60
<표 4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 .....	60
<표 41>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	61
<표 4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	61
<표 43>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	62
<표 44>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 .....	62
<표 45>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 .....	63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 .....	63
<표 47>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	64
<표 48> 경쟁력 있는 예술 분야 선택 후 집중육성 .....	64
<표 49>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 .....	65
<표 5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 .....	65
<표 51> 제주문화비전 추진전략 내용 .....	70
<표 52> 국제문화전원도시 기본계획 추진체계 .....	72
<표 53> 복권기금 세출 현황 .....	75
<표 54>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응답자 특성별) .....	82
<표 55> 제주지역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응답자 특성별) .....	83

<표 56>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응답자 특성별) .....	84
<표 57>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응답자 특성별) .....	85
<표 58>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응답자 특성별) .....	86
<표 59>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응답자 특성별) .....	87
<표 60> 정책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응답자 특성별) .....	88
<표 6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응답자 특성별) .....	89
<표 62>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응답자 특성별) .....	90
<표 63> 경쟁력 있는 예술 분야 선택 후 집중 육성(응답자 특성별) .....	91
<표 64> 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응답자 특성별) .....	92
<표 6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응답자 특성별) .....	93

### <그림 차례>

<그림 1>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11
<그림 2> 세대 및 인구 .....	30
<그림 3>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성도 .....	47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전환,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작품이다. 과거에는 중앙중심의 발전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일방통행 방식의 기능이양이나 권한위임 정도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을 받았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은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외교,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물질·인적 자본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다. 외자유치를 통해 관광, 의료, 교육, 1차 청정+첨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이는 산업생산성의 전략 차원에서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국제자유도시를 잡스런 세계문화의 쓰레기 집하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성이 과거처럼 단혀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할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성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문화변동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 제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바탕이 자리잡혀 있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변화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문화는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제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 부재로 기존의 문화정책 방향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한 정책방향들이 실용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에 목적을 둔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문화정책 시행을 위하여 국내 지역 문화정책들을 조사·정리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문화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에서 문화정책 모델을 구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 지역적 범위 : 제주도 일원 (간접적 범위는 국내·외)
- 시간적 범위 : '06. 7월 ~ 현재까지
- 내용적 범위
  - 문화정책의 정의
  - 국내외 지역 문화정책의 실태
  - 문화정책의 인지도
  - 문화정책의 향후 방향
  - 제언 및 결론

##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자치도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문화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문화발전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 도시의 문화계획들을 조사·검토하였고, 설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후의 문화변화에 대하여 도민들의 욕구를 알아보았다.

제 I 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II 장에서는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지역 문화정책을 정리하였고, 제 III 장에서는 제주지역 문화현황 실태에 대해 일반현황, 제주지역 문화행정 체계, 제주지역 문화인프라의 조성현황, 제주지역 문화예술 현황 등으로 정리하였고 제주문화의 여건분석 및 SWOT 분석, 2003 년도에 수립 한 제주향토문화예술중장기계획 검토 및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의 관한 인식분석도 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특별자치도로의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안을 제안하였다. 제 V 장은 결론 부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된 문화정책을 시급하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 II.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지역문화정책

### 1. 문화정책의 의의

#### 1) 문화정책의 개념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이란 ① 특정 공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 ③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 ④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⑤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① 정책은 달성해야 할 최종 상태로써 목표를 설정하고, ②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계획 또는 제안 및 권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③ 이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위해 사안별로 결정 행위를 하며 ④ 계획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예상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목적과 수단이며, 추구할 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할 구체적 활동지침으로써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정책은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가설이며, 원래의 조건과 미래에 나타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담는다.

문화정책은 문화행정과 다르다. 행정은 공공단체가 법률·명령·법규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업무이다. 정책이란 '정부의 행동방침'으로써 공공부문이 주로 행동하며 공공목적과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갖는다. 행정에 비해서 정책은 보다 장기적·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문화행정 관련 사무도 단순한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토목 등을 포함하는 종합행정으로 추진되어 그 뜻과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화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범위만 가지고 문화정책과 행정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정책은 새로운 공공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거버넌스(協治) 개념으로 접근하여 추진할 경우 문화정책적인 논리는 정책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의 광범위성에서도 찾아야 한다. 그 결과 문화정책의 역할도 '일방적 제공에서 협동적 운영'으로, '향유 공감에서 협동적 창조'로 변해야 한다.

문화정책은 사회성을 갖춰야 하고 모든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술작품 창조와 소비를 위한 기회제공은 오히려 정책목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실제로 문화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책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문화행정 대상이던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사적 권익을 제한하면서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달리하고, 저작권도 국제적인 진행제도와 조약에 의해 달라지고 있다. 교육제도와 문화의 관계 변화도 급진전된다.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국제교류사업, 도시계획과 관련한 경관과 도시디자인, 영상콘텐츠와 결부된 문화산업의 육성 등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문화정책에 관련되는 영역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이러한 광역적 또는 종합적인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기술·정치·경제·역사 등 모든 환경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고 무한 확대 중이다.

## 2) 문화정책의 성격

정책의 개념만으로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성격과 정책내부의 구조들을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

① 당위성: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는 의도이다. 따라서 정책은 반드시 가치관적인 사고의 판단을 내포한다.

② 미래지향성: 정책은 가치와 행동을 미래에 연관시키는 것이지 결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행동은 장래성에 입각하여 판단, 설계, 집행되는 것이다.

③ 행동지향성: 정책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행동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정책은 당위적인 가치의 구현을 의도하면서도 현실 속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야 한다.

④ 변동유발성: 정책은 반드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양적·질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닥쳐올 환경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적응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⑤ 인본주의적 의의: 정책이 일으키는 필연적인 변화는 반드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즉 정책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이익과 손해를 주기 마련이어서 인간의 삶의 질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변화는 반드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의 질」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⑥ 시스템적 의의: 정책은 그 자체가 다른 정책과 완전히 독립하여 단절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모든 정책은 더 큰 정책체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관심과 영향력이 전체사회에 파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과정성 확보와 전체체계의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⑦ 비용유발성: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비용을 가져오게 한다.

⑧ 불완전성(가변성): 어떤 정책이든 완전무결한 최선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정책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어떤 정책이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정책의 목적과 전제까지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⑨ 광의의 합리성: 정책의 합리성은 기계적·경제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비합리성(감정), 초합리성(직관과 창의력), 우연성, 비정립 지식(상식, 경험, 막연한 이론)등의 인간적 합리성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sup>1)</sup>

### 3) 문화정책의 특성

#### (1) 정책가치의 실현

문화정책은 문화와 정책을 합친 말로, 문화라는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엮어 내는 공공활동을 일컫는다. 그 가운데서도 정책주체가 문화의 가치를 획

1) 이종인, 『문화정책강의초록』, 추계예술대학교, 2006, p. 2.

득·유지하고 부가·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도하는 종합적인 생각·행동·대안·방침·계획이 바로 문화정책인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정책은 일반정책에서 흔히 쓰는 정책구조와는 다른 틀로 전개된다.

문화정책은 문화의 어떤 특징을 살려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가?

첫째, 문화정책은 문화의 고유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문화정책은 문화를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되 문화가 지니는 고유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새롭게 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덧붙여 좀 더 뜻이 높은 활동으로 전개된다.

문화는 인간의 본질적·근원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이다. 물론 가치로서의 문화가 참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뛰어난지, 또 '정책의 힘'으로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다.

문화는 동태적·지속적으로 창조를 반복하여 새로운 세계를 발견·개척하며 축적 된다. 이처럼 우수한 발전성과는 계속 쌓여 세대·국경을 뛰어 넘어 계승되고 마침내 사회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한 진전을 거치면서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더구나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주체이고, 다양한 지역·사회·민족·역사·전통 속에서 다채롭게 발전하고 있어 그 어느 정책대상보다도 더 다양한 대상이다. 문화예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창조단체의 자발성·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무한상상을 펼치며 전개되므로 정책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풍부하고도 우수하게 꽃피게 된다.

이 같은 문화의 특징을 곁들여 볼 때 결국 문화정책이란 인간의 본질적·근원적인 '문화에 관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그러한 문화의 특질을 충분히 배려·조정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비로소 정책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문화정책은 정책 속성에 따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정책적인 특징을 살려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사회의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문화가 갖는 사회적 의의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활동을 거치면서 문화는 모든 분야의 창조성과 매력의 원천으로서 거듭나고, 국가·도시·지역은 그 곳의 고유한 문화 가치를 키우게 된다.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단체·집단·나

라사이의 상호이해를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정책은 정책의 주제와 객체 사이의 소통을 반복하는 사이에 문화의 소통 가치도 자연스럽게 실현한다. 이 두 가지 특성에 맞춰 문화정책은 관련된 정책가치나 문제에 대하여 행동지침들을 만들고 목적과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의 정책은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또 수많은 프로젝트로 구조화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의 창조·전달·교류 등이 쌓이고 거듭되어 사회 전체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축적되고, 그것이 다양한 '사회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문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반이자 중심으로서 활약하도록 정책이 다리를 놓아준다.<sup>2)</sup>

## (2) 사회의 질 향상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정책은 특히 정책목적이 뚜렷하다. 문화정책에서는 문화가 지니는 고유가치, 인본가치, 이미지가치, 소통가치 등의 정책목적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들을 존중하며, 이를 조정하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은 사회 속에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그 해결책을 계획·실행·평가하여 이의 활용과정을 반복하여 전개한다. 이처럼 문화정책은 문화가 갖는 '사회적 순환성'을 잘 반영한다.

또한 문화예술은 감성적이므로 교육, 외교, 방송 등의 다른 국가정책 이슈들에 덧붙여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정치경제적인 조건들을 뛰어넘는 접근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수많은 정책이슈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문화정책은 사회적 다양성을 끌어안고 이에 맞춰가는 역할을 소중히 한다. 문화정책에는 예술정책은 물론 다른 정책도 포함되며 획일적 추진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도 강해서 구체적인 계획(예: 문화공간 건설)을 전국적인 규모로 먼저 수립하고, 지역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끔 문제가 야기된다. 더구나 개별 시설에 따라 목적이 다르므로 미술관 하나를 짓더라도 시장조사를 해야 하고 목적·이념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2) 이홍재, 『문화정책』, 서울: 논형, 2006, p. 17.

문화정책은 집행결과가 사회나 개인의 자율성·다양성은 물론 질적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정책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의 과정이나 인생설계'와 연관되어 개개인 생활의 질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문화정책은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서 개개인의 자발적 활동을 자극하고 신장시킨다. 이를 위해 정책은 조건들을 정비하고, 개인만의 활동 한계를 보완해 주며, 불균형을 시정하여 고른 문화발전으로 인본주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처럼 문화정책은 개인활동은 물론 평균적 수준의 삶의 질을 조성한다. 3)

### (3) 문화활동의 확산

문화는 활동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책과 결합에서도 그 범주가 매우 폭넓다. 또한 문화정책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강조점, 문화관련 정부조직 체계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동기, 접근방법, 방향도 다르다. 그러나 문화창조활동을 보장하며, 고유문화전통과 문화재를 전승하고, 다른 세부 정책들이 서로 연결되고 순환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문화정책이 가지는 세계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라의 언어를 닦으며, 창조자들의 창조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파생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대상은 생활문화, 예술,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재, 우리 말, 저작권, 종교 등을 망라한다. 그밖에도 정치적 뿌리에 의해 관광, 체육이 포함되기도 한다. 예술은 장르별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화산업은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까지도 포함된다. 이처럼 문화정책은 문화 창조라는 기본적인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며 이를 중심으로 다면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구조를 갖는다. 정책대상이 되는 문화 활동은 주로 정부조직과 관련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하여 범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광범위한 문화정책에서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질 수 없지만 관점에서 따라 고려해볼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간주되며, 생활문화가 이를 후원하는 모습의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일반의 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관광이나 체육도 넓은 의미의 문

3) 이홍재, 앞책, p. 20.

화에 속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추진되며 동시에 문화를 소재로 한 발전정책의 하나로서 마련될 것이다.

이 같은 다양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볼 때 문화정책은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문화기반 정비, 예술 활동 장려, 활동지원, 참가와 향유기회 확대 등의 폭넓은 문화활동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문화정책은 정책 체계상 단순한 집행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처럼 범위, 영향, 정책 수단 면에서 문화정책은 종합적인 경영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종합 정책적 성격은 지역문화정책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의 전제 내지 핵심내용으로 문화정책이 포함되는 것이다. 정책 대상도 지역경관, 쾌적성, 공원, 거리, 가로 등 하드웨어는 물론 생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넓다. 또한 지역 수준의 문화정책은 문화환경 조성, 사회학습, 산업발전 등에 관계되는 지역의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는다. 문화정책에 관련된 인적 자원도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건축학, 미학, 역사학자는 물론 예술가, 예술단체, 미술관의 학예사,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 문화시설의 직원, 기업, 예술경영 종사자 등에서 폭넓게 동원된다.<sup>4)</sup>

## 2.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및 환경변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60년대의 문화유산, 전통문화 보존·계승 중심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창작활동 활성화에 바탕을 둔 예술가 지원중심으로 진행되었다. 80년대 이후에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전략으로서 문화공간, 시설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이 이뤄지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수요자 및 향유자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큰 방향이 공급부문에서 매개영역(공간)으로 변모하였지만 여전히 문화수요층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기반시설이 이전보다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그 편중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요층에 한정되는 경향이 두드

4) 이홍재, 앞책,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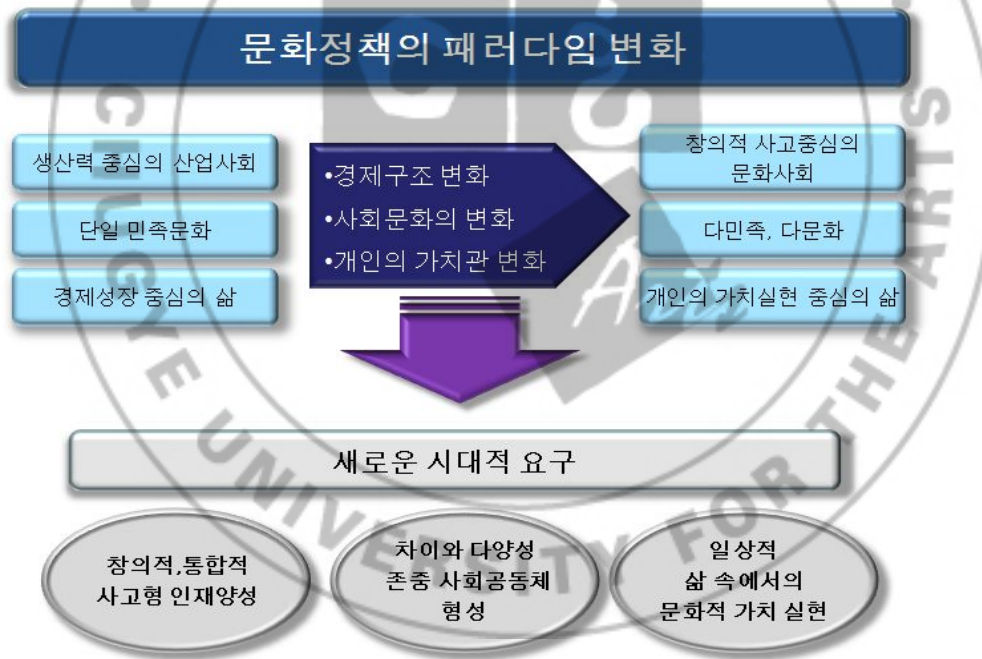
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문화에 대한 수요는 어느 한순간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여 급증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공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어린 시절부터 풍부한 예술적 경험과 오랜 기간 교육적 관점에서 문화 활동을 접하는 가운데 차츰 성장해 간다는 것에 대한 합의 속에서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표 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변화

연도	내용
1970년대	전통문화의 보존
1980년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예술가 지원
1990년대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 복지 향상
2000년대	문화예술 수요확대를 위한 일반 향유자 지원

<그림 1>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예술 활성화 중장기 전략』, 2007.

### 3. 지역 문화정책

#### 1) 지역 문화정책의 역할

문화정책에 대한 역할 기대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문화예술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자본주의의 성숙과정에서 국민생활에 필수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자치단체로써 지역문화예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예술의 창조 및 발전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이 문화적 특성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 근거와 명분을 찾을 수 있다. 문화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문화적 하드웨어의 수준으로는 생활환경의 조성, 문화자원의 개발, 문화자원의 산업화가 필요하며 문화적 소프트웨어의 수준에서는 문화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문화예술 관리능력의 향상, 문화시민으로서의 향수능력제고, 지역간 문화교류의 촉진 등이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실천적 행동이 중요시 된다고 본다. 지방정부가 지역문화개발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첫째,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지원과 창작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를 발굴, 전승, 창조하기 위한 문화예술 관리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문화시민의식 및 향수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문화향수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다섯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행사를 개발하고 개최함으로써 시설의 활용과 시민의 향수기회를 제고시켜야 한다<sup>5)</sup>.

지역문화정책의 발전을 위 새로운 시각을 설정해 보면 첫째, 지역의 정체

5) 김미경,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략적 문화개발에 관한 방법론적 제안』, 한국지방자치회보 제12권 제1호(통권 29호), 2000, pp. 116-118.



성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마다 독자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문화정책의 올바른 수립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 개방적인 지역 사회로의 재구조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가 지역중심의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도시계획이나 발전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창작과 교육, 문화향수, 문화상품, 문화산업, 문화축제 등 문화의 전 단계를 주민의 생활에 뿌리를 두고 기획해 나가야 한다. 주민이 문화의 향유자와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sup>6)</sup>.

개별지역 단위로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지역문화혁신에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이념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주목된다. 문화를 지역민의 전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보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공간재구성, 도시재생, 문화도시만들기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을 지역문화정책의 파트너로 삼는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지자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제주의 지역사회는 지역문화를 가꾸고 길러 나가는데 소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역문화정책은 구체적인 제도나 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와 대안문화의 갈등관계를 고려하여 양자간 공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도시문화는 다양한 교류 속에서 개성을 창조, 발전하는 것으로 도시간의 협력과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지역 문화발전계획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

6) 김문규, 『지역문화행정의 전개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1, pp. 141-1442.

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발전 정책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해 1990년대 들어 문화분권화를 구체화하면서 여러 부문에서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과연 분권 시스템에 알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유행인지 잘 모를 정도로 '포장된 비전'이 남발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종합계획은 물론이고 문화발전계획과 같은 개별 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다. 종합계획은 먼저 기본구상을 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으로 이어간다. 문화발전에 관련된 개별 계획은 문화 환경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사무범위 안에서 스스로 계획 한다. 다루게 될 내용에는 주로 환경 분석, 비전과 목표, 주요 분야별 계획, 재정계획, 계획추진 일정, 목표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은 내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만들며, 대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추진 한다. 간혹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드는 계획에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문화발전계획에는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만드는 분권형 계획이 대부분인데 이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서 집행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조하고 제도화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 분권형 계획은 자치단체 스스로 계획 과제를 발견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거쳐야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계획과 연결된 경우에는 이해를 조정하고 계획사이에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창작 활동이다. 문화예술발전은 계획과 종합지원 성향을 함께 갖는데 문화정책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역의 문화정책은 자원, 산업, 환경, 행사를 통합하여 종합행정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문화관광이 중심축을 이루는 문화중심의 지역정책을 위해서 경영전략적 개혁을 펼치는 추세이다.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전개해야 할까?

첫째, 문화마인드를 심고 문화행정을 개혁해야 한다. 지역 문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이 남아있는 문화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 문화정책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국가준립에 관

련된 사무, 전국적 규모와 관점에서 추진할 정책들에 모아진다.

그 밖에 지역이 행정적으로 또는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정책업무는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방시대에 걸맞은 정책능력을 갖추고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에 대한 기획력을 스스로 갖추는 '기획력의 내부화'를 이뤄야 한다. 문화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지방행정조직이 썩 훌륭한 주체는 아니다. 자치단체가 예술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과감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문화행정 역할과 범위의 재검토, 민간과 역할 분담, 정보의 적극 공개, 목표에 의한 관리(MBO), 전문분야에 대한 인사 독창성 보장, 고용체계의 능력주의 보장, 문화정책에 대한 업적평가시스템 개발, 문화행정 정보화의 추진 등의 중요한 문화행정의 실천과제이다.

둘째는 자치단체가 누적된 문화정책을 의회, 단체·기업·주민과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화 하고, 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공 및 민간의 인력, 재정적인 협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화발전을 이끌어 갈 문화 인력의 자급·육성·지원 못지않게 지역문화의 주도적 인물을 지원하며 연계시키는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고 협력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위원회 등 교육기관도 협력해야 한다.<sup>7)</sup>

문화발전계획의 수립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우선 시민들의 필요한 욕구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나 그룹 인터뷰로 정책에 의견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기초 계획을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한다. 아무튼 주민들이 다양하게 각 단계마다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3) 지역 문화정책의 반성과 변화

기존의 지역문화정책은 역사적 유적지나 건물 등의 보전, 전래 행사 등의 유지·전승과 같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다고 기존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 문화정책들은

7) 이흥재, 앞책, pp. 252-255.

주민의 예술창조활동이나 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고, 예산규모도 작아서 참여주민이 적었다. 지역의 문화 활동이 단순히 서울문화를 모방하는 손쉬운 모방문화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문화의 가장 큰 키워드인 창조활동에는 등한시 되어 왔다는 것이다.

<표 2>와 같이 지역의 문화정책은 변화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호응을 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창조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를 창출 한다는 발상에서 문화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행정의 역할도 주민과의 공동작업이 되어고 있다. 행정이 스스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창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고, 행정은 주민문화활동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운동은 주민(민간)쪽에서 시작 되고, 그 뒤에 행정을 움직이고 지역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문화활동인 경우 소프트웨어는 행정쪽에서가 아니라 주민 쪽에서 나오는 추세이다. 문화를 낳게 하는 창조적인 힘은 주민 상호간의 '교류와 자극'(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의 몫은 주민의 문화창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반(하드웨어)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행정이 주민문화활동의 매개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특히 요망되는 것은 유능한 행정요원의 자질과 활동들인데 성공적인 지역문화의 사례를 보면 어김없이 유연한 발상과 뛰어난 행동력을 갖춘 행정요원과 역시 유능하고 독창적인 주민활동가(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과 주민의 협동관계가 행정의 전례답습주의나 무사안일주의를 뛰어 넘어 독창적인 문화전략을 성립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기존의 편향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만의 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펴나가야 하겠다.

<표 2>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구분	방향	문화	주체	주안점	소통	참여방법
기존	보존	모방	행정	하드웨어	단방향	간접
변화	창출	창조	주민	소프트웨어	양방향	직접

8) 이종인, 앞책, p. 28.

## 4. 국내외 문화정책 현황

### 1) 문화행정조직 체계 비교

서울의 경우에는 문화국 산하에 문화정책과 4개 담당, 문화예술과 3개 담당, 문화재과 4개 담당으로 인천인 경우 문화관광체육국 산하에 문화예술과 4개 담당, 문화재과 5개 담당, 경기인 경우 문화관광국 산하에 문화정책과 5개 담당, 콘텐츠진흥과 5개 담당이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인 경우 다른 시·도의 행정조직에는 없는 지질공원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상 문화 문화와 관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교통국안에 교통항공정책과가 있는 것이 이채롭다.

<표 3> 문화행정조직의 비교표

행정조직 지역	국 과 담당			
	문화관광교통국			
제주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교통항공정책과	스포츠산업과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지질공원 T/F팀	관광정책 관광산업 회의산업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교통정책 버스행정 택시행정 차량관리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 tm포츠지원
문화국				
서울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체육진흥과
	문화정책 문화관리 문화기반 문화개발/국제축제	예술정책 문화진흥 시민문화	문화재정책 문화재관리 문화유산진흥 조사연구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체육시설 장애인체육
문화관광체육국				
인천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육성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확충/관리	문화재관리보존 문화재발굴 전통/민속예술의 보존 문화지구지정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진흥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자원조사/통계 관광지지도/조성 해양및도서관광개발	생활체육진흥 체육시설확충/관리 국제체육교류 국제경기/대회유치
문화관광국				
경기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콘텐츠진흥과
	문화정책 문화재보존 문화재관리/문화재지정 예술진흥/문화시설	체육행정 체육지원 체육시설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자원 전략관광	콘텐츠정책 콘텐츠지원 콘텐츠기반

## 2) 지자체 문화예산 비교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의 규모도 중앙정부의 문화예산도 높은 수치로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지방화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이 확대되어 문화관광 재정투입 규모가 꾸준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문화시설부분에 집중된 투자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문화향유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여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홍보는 물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문화관광자원을 집중 발굴,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 면에서도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문화부문 예산이 2004년부터 2%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문화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문화예산 약 4천8백만원, 문화예술예산 2천8백원이다. 지역별로 전체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문화예산의 경우 광주(7.2%), 문화예술예산은 광주와 전북(2.1%)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산은 1.1%와 문화예술예산 0.6%로 전국 평균 각 2.4%, 1.3%에 못 미치고 있다.

<표 4>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지자체 전체예산	문화예산		분야별 예산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2003	973,503	18,508	1.90%	8,880	816	5,124	3,688
2004	971,778	22,782	2.30%	11,518	838	6,213	4,213
2005	1,058,547	25,066	2.40%	12,540	1,669	6,285	4,572
2006	1,177,253	24,568	2.10%	13,397	1,756	5,902	3,513
2007	1,265,371	25,991	2.10%	14,349	1,517	6,513	3,612
2008	1,493,892	34,541	2.30%	17,192	2,456	9,580	5,31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표 5>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

(단위: 개, 천원(%))

구분	자자체 수	전체예산	문화 관련 예산(전체예산대비 비중)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전체	248	145,212,359,326	3,544,969,823(2.4)	1,823,266,468(1.3)	737,993,434(0.5)
서울	26	21,975,744,118	291,112,038(1.3)	260,539,055(1.2)	97,480,907(0.4)
부산	17	8,232,420,069	81,966,262(1)	62,060,548(0.8)	43,116,006(0.5)
대구	9	5,327,908,187	117,168,283(2.2)	93,759,903(1.8)	34,113,822(0.6)
인천	11	6,109,441,629	131,094,566(2.1)	94,363,567(1.5)	60,794,942(1)
광주	6	2,976,409,737	214,280,265(7.2)	62,322,378(2.1)	24,268,739(0.8)
대전	6	3,305,197,895	63,982,659(1.9)	56,251,194(1.7)	29,851,485(0.9)
울산	6	2,394,543,916	42,356,633(1.8)	31,605,862(1.3)	18,523,921(0.8)
경기	32	27,674,429,362	480,149,545(1.7)	277,076,107(1)	133,981,159(0.5)
강원	19	8,663,415,200	271,598,940(3.1)	79,394,861(0.9)	31,807,901(0.4)
충북	13	5,443,166,303	115,162,145(2.1)	66,875,525(1.2)	22,254,129(0.4)
충남	17	8,624,901,257	182,966,586(2.1)	105,727,592(1.2)	31,438,631(0.4)
전북	15	7,598,441,212	264,111,242(3.5)	159,422,568(2.1)	39,483,509(0.5)
전남	23	10,974,877,436	422,513,124(3.8)	166,275,907(1.5)	23,976,092(0.2)
경북	24	10,414,226,593	445,682,957(4.3)	150,554,602(1.4)	64,000,162(0.6)
경남	21	11,961,505,244	381,528,806(3.2)	135,106,271(1.1)	67,672,319(0.6)
<b>제주</b>	<b>3</b>	<b>3,535,731,168</b>	<b>39,295,772(1.1)</b>	<b>21,930,528(0.6)</b>	<b>15,229,710(0.4)</b>

<표 6>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

(단위: 개, 천원(%))

구분	자자체 수	전체예산	문화예술예산		
			합계	평균	비율
전체	248	145,212,359,326	1,823,266,468	7,351,881	1.3
서울	26	21,975,744,118	260,539,055	10,020,733	1.2
부산	17	8,232,420,069	62,060,548	3,650,620	0.8
대구	9	5,327,908,187	93,759,903	10,417,767	1.8
인천	11	6,109,441,629	94,363,567	8,578,506	1.5
광주	6	2,976,409,737	62,322,378	10,387,063	2.1
대전	6	3,305,197,895	56,251,194	9,375,199	1.7
울산	6	2,394,543,916	31,605,862	5,267,644	1.3
경기	32	27,674,429,362	277,076,107	8,658,628	1
강원	19	8,663,415,200	79,394,861	4,178,677	0.9
충북	13	5,443,166,303	66,875,525	5,144,271	1.2
충남	17	8,624,901,257	105,727,592	6,219,270	1.2
전북	15	7,598,441,212	159,422,568	10,628,171	2.1
전남	23	10,974,877,436	166,275,907	7,229,387	1.5
경북	24	10,414,226,593	150,554,602	6,273,108	1.4
경남	21	11,961,505,244	135,106,271	6,433,632	1.1
<b>제주</b>	<b>3</b>	<b>3,535,731,168</b>	<b>21,930,528</b>	<b>7,310,176</b>	<b>0.6</b>
광역	16	72,889,537,820	709,620,225	44,351,264	1
기초	232	72,322,821,506	1,113,646,243	4,800,199	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 3) 국내외 문화발전계획9)

#### (1) 서울 창의문화도시(Culturenomics)

○ 비전

- 생활공간에 문화예술이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예술도시
-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의 품격을 입히는 디자인 도시
-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자본의 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도시
- 창의인구가 몰려오고 관광객과 글로벌기업이 늘어나는 세계도시

○ 기본목표

- 세계수준의 창의문화 인구(70만명) 창출
-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20위권) 가치 창조
-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육성 - 세계 5위
- 도시매력 창출로 관광경쟁력 강화 - 20위권

○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표 7> 서울 창의문화도시 주요내용

전략	10대 핵심추진과제
예술적 창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시설이 문화예술의 창의 발신지로 바뀝니다.</li> <li>· 유구한 역사를 복원하여 서울의 매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li> <li>·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li> </ul>
도시의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하겠습니다.</li> <li>· 한강을 물과 사람이 만나는 서울상징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li> <li>·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곳곳에 문화의 샘을 만들겠습니다.</li> <li>· 물처럼 공기처럼 생활 속에 문화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li> </ul>
도시가치와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을 세계 최고의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li> <li>· 문화의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li> <li>·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li> </ul>

9) 국내외 발전계획은 「인천문화도시 기본계획」 내에 있는 자료를 재인용 함.



## (2) 인천 문화도시 계획

### ○ 비전

- 행복한 변화, 함께하는 만드는 문화도시
  -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 자족적 문화 도시
  - 역동적인 시민들의 도시

### ○ 정책목표

- 문화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 소통이 문화가 되는 도시
- 시민이 문화의 주체인 도시
- 문화로 정체성을 찾는 도시
- 문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 예술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

### ○ 추진방향

<표 8>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정책과제
행복한 변화,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문화 다양성 존중	문화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다문화정책 강화 다양한 문화 향유 세대 지원(중점과제) 독립 및 소수 문화 지원
		소통이 문화가 되는 도시	공공미디어 및 정보 유통 활성화(중점과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남북교류 활성화
	문화 공공성 확대	시민이 문화의 주체인 도시	시민 중심의 문화공간 확대 및 내실화 시민문화커뮤니티 확대(중점과제) 문화매개활동 활성화
		문화로 정체성을 찾는 도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향유(중점과제) 도시 정체성에 맞는 도시경관 창조 문화예술생태계 선순환 환경 구축
	문화 자생성 강화	문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교육 강화(중점과제) 미래 문화인력 양성
		예술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	전문 예술공간 확충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전문예술인 유인(중점과제)

**(3) 성남 문화예술창조도시(2005)**

- 비전 :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는 「문화예술도시, 성남」 구현
- 기본 목표
  - 시민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예술시민으로서의 도시 만들기
  - 생활예술이 꽃피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심의 공간정비 및 도시재생
  - 지역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만들기의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
- 기본방향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적 삶
  - 시민이 누리며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
  - 문화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동네로부터 문화적 삶의 질을 드높이는 문화복지 공동체 구현
  - 세계 속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의 성남시 위상 제고
- 주요내용

<표 9> 성남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주요내용

추진과제	내용
5대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li> <li>·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li> <li>·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li> <li>·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li> <li>· 문화통화 시스템의 기반조성</li> </ul>
문화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중심 문화 인프라 구축</li> <li>· 도시이미지 제고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li> <li>· 창조하는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li> </ul>
시민문화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문화 활성화</li> <li>· 문화예술교육 강화</li> <li>·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li> </ul>
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사업</li> <li>· 공연예술 사업</li> </ul>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amp;공공디자인 박람회 개최</li> <li>· 사랑방 문화클럽 페스티벌</li> <li>· 축제요소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li> </ul>

#### (4) 일본 치바시 문화예술진흥계획(2008)

##### ○ 기본 목표

- 개 성: 전통 지역문화와 유산의 계승을 기본으로 '치바다움'이라는 문화적 개성 모색
- 세 계 성: 세계성을 갖춘 새로운 치바문화의 진흥 모색
- 시민주체: 시민주체를 기본으로 기업, 교육 기관 등과 행정의 연계하여 새로운 치바문화 모색

##### ○ 성격

- 치바시 시정운영 지침 「신종합비전」에 근거했으며, 중·장기적인 도시 만들기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치바비전21」의 계획기간에 맞춰 2008년부터 2015년(8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함.
- 「치바시문화진흥종합계획」의 이념 및 기본계획을 계승 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이후 대처 방식 수립

##### ○ 주요내용

<표 10> 일본 치바시 문화예술진흥계획 주요내용

기본시책	주요과제
문화예술을 보호 육성하는 도시만들기	·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신 · 도시만들기와 문화의 연계 ·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민의 시야 확대	· 문화시설의 매력 향상 · 참가형·체험형 활동의 추진
문화를 창조하는 인재의 육성	· 어린이 문화예술 활동의 충실화 ·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
창조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설의 확보	· 창작활동 공간 만들기 · 기존시설 활용 촉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 정보제공 기능의 충실 · 시민과 행정의 협동체제 확립 · 산·학·관의 연계 촉진 · 문화진흥추진체제 강화

**(5) 일본 삿포로시 문화예술기본계획(2009-초안)**

○ 기본 목표

- 문화예술 활동에 의한 성과가 하나하나 꽃필 수 있도록 순환하여 창출해 가는 「꽃피는 창조도시」
- 문화예술의 창조성 활성화 및 산업진흥과 지역활성화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수립

○ 성격

- 「제4차 삿포로시 장기종합계획」(2000)에 ‘예술·문화진흥’ 계획으로, 5년(2009-2013)간 삿포로시 문화예술시책 추진 지침 기능

○ 주요내용

<표 11> 일본 삿포로시 문화예술기본계획 주요내용

기본목표	주요과제
삿포로 문화예술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li> <li>· 문화예술 시설 정비 활용</li> <li>· 어린이 문화예술 활동의 충실화</li> <li>· 예술가 지원 사업</li> </ul>
삿포로 문화예술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체 간 연계를 통한 신규사업 구축</li> <li>· 문화예술 연계한 새로운 역할 육성·지원</li> <li>· 아트센터 검토</li> <li>· 의견 수렴 체계 구축</li> </ul>
삿포로 문화예술의 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 기능 강화</li> <li>· 국제 규모 행사 및 활동단체 지원</li> </ul>
삿포로 문화예술의 계승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자연유산 보존 계승과 이해 촉진</li> </ul>

이상 국내의 문화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글로벌경쟁 환경 하에서 세계 일류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잣대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특별시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바로 '창의성'과 '상상력'에 있다고 하겠다.

인천광역시에는 아시아계 이주민의 증가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외부 인구 유입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노령화 사회로 전환, 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 증대, 물질 위주 가치 기준의 변화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다양성', '공공성', '자생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성남시도 시민을 중심으로 한 예술시민의 도시만들기, 생활예술이 꽃피는 창조도시, 문화예술을 통한 공간정비 및 도시 재생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일본치바시 계획은 전통 지역문화와 유산의 계승을 기본으로 '치바다움'이라는 문화적 개성을 모색하였고, 일본 삿포로시의 계획은 '창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문화를 전략적으로 활용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문화정책이 없다. 따라서 이 도시들의 문화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것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4) 광역시도별 문화재단 현황

지역의 문화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로 문화예술 전문적 성격을 갖춘 문화재단들의 출범이다. 기존에는 정부에 속한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정책을 펴나갔다. 1997년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공공재단법인인 문화재단들이 설립되어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자체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표 12>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민과 호흡하는 전문적 문화예술의 주체인 지자체 문화재단이 담당하여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표 12> 공 혹은 공공부분의 문화 거버넌스

범위		문화 거버넌스	
중앙		정부기관 -관련기관	관련기관(특별법인, 문화재단 등)
지역	광역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li> <li>○ 기타 관련 부처 및 소속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li> <li>○ 한국문화관광연구원</li> <li>○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시도 문화정책과 (시도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0개 시도 문화재단</b>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li> <li>* 2010년까지 전북, 충북 발족 예정</li> <li>* 2012년까지 충북, 경북, 울산 설립 예견</li> </ul>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0개 시군구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체육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0개 시군구 문화재단</li> <li>* 조만간 군포, 원주 발족 예정</li> </ul>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재구성<sup>10)</sup>

<표 13>을 보면 1997년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향후 5개 광역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단들도 설립되고 될 예정이다. 광역시도 재단들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을 중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시설 위탁운영, 문화재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은 대략 서너 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 문화정책 개발을 지역의 문화재단이 전담하여 하여야 한다.

10) 송시경, 『위원회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p. 3.

<표 13> 전국 지역문화재단 현황

구분	출범일	재단 이사장	조직 인원(사무)	최초 출연금	기금조성 목표액	2009 예산액	주요사업
		대표 이사			기금규모 (2009말)	2010 예산액	
경기 문화 재단	1997. 4. 30	경기 도지사	1실 1사무처 (2실 1단 7팀 1학교) 1원(2실) 4관(4실 4팀) 1센터(1실 1팀) 1단(2팀)	335억원 (문진금 9.75, 기부 1, 도출연 324)	1,000억	915억	-문화유산발굴 보존 현대화 -문화예술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 -도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권영빈	206명		1,030억	635억	
강원 문화 재단	1999. 12. 28	강원 도지사	1위원회(지원) 1처(3실, 8팀, 2 원회) 1연구소 (1위원회1실 6팀)	60억 (문진금9.75, 도출연 50)	200억	126억 5천 3백만	-문화예술진흥 지원 사업 -강원국악예술회관위탁관리 -강원문화재단연구소운영 등
		김학철	45명		188억	108억 5천만	
제주 문화 예술 재단	2000. 12. 31	강영철	1처 (2부 5팀 1센터) 2연구소 (1실 2팀 6분야 1단)	45억 (문진금 42, 도출연 3)	300억	46억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랑티켓및문화바우처사업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연구용역 사업 -문화재단연구소 운영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	19명		137억	31억 7천 6백만	
서울 문화 재단	2004. 3. 15	박범신	2본부 1센터 1단 1정책보좌역 11팀 4FTT	500억 (문진금 0, 시출연 500)	3,000억	375억	-문화네트워크 사업 -문예지원사업 -문화서울기반조성 사업 -예술창의력개발사업 -페스티벌 등
		안호상	114명		1,253억	326억	
인천 문화 재단	2004. 11. 26	인천 광역 시장	1위원회(영상) 1처 2실, 1사무국 5팀, 위탁사업-4관	395억 (문진금 9.75, 시출연 385.25)	1,000억 매년 60억이상 일반회계 출연	150억	-문화예술기금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아트플랫폼 운영 -도서관운영사업 등
		심갑섭	63명		504억	97억	
광주 문화 예술 진흥 위원회	2004. 12. 1	오건탁	1 위원회 2수위원회 1사무국 1부	45억 (문진금 45)	100억	54억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영상체 -국비수탁사업 등
		오건탁	5명		50억	45억	
부산 문화 재단	2009. 1. 21	부산 광역 시장	1처 2위원회(심의) 3부 2팀	113억 5천만 (문진금, 시출연)	500억 (2018년)	47억 4천만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학예진흥사업 -부산메세나촉진사업 등
		강남주	23명		114억	89억	

구분	출범일	재단 이사장	조직 및 인원 (사무)	최초 출연금	기금조성 목표액	2009 예산액	주요사업
		대표 이사			기금규모 (2009말)	2010 예산액	
대구 문화재단	2009. 4. 16	대구광역시	1위원회(자문) 1처(김성열) 3팀	194억 (U대회잔여 재산150, 문진금44)	500억	22억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문화예술의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구문화브랜드 개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류사업 등
		김순규	14명		185억	61억	
전남 문화재단	2009. 5. 29	전남도지사	1처, 3팀, 1연구소	3억 (110억 추가 추진예정: 문진금 100, 국약단 기금 10)	200억	3억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문화관광 상품 개발 -도 주요사업 위탁 운영 -전통예술 보급 및 운영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	21명		108억	-	
대전 문화재단	2009. 9. 28	대전광역시	1위원회(자문) 1처, 4팀 14명	90억 (문진기금)	500억	-	-문화예술창작 학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문화예술사업 평가, 컨설팅 -창작예술 인큐베이터 -문화지도제작 및 문화바우처 -문화예술지표 수요조사 -문화예술단체 DB 구축 -기타 시 위탁사업
		박강수			89억	32억	
경남 문화재단	2010. 2. 18	경남도지사	1처, 2팀 정착단계	115억 (문진금 105, 도출연 10)	1,000억 (2025년)	-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문화향수 제고 사업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등
		이만기	10명		113억	134억 (기금적립금 포함)	
전북 문화재단	2010년 하반기 예정	-	-	-	-	-	-
충북 문화재단	"	-	-	150억 (문진기금)	200억	-	-

- 울산, 충남, 경북, 2012년까지 출범 예정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재구성<sup>11)</sup>

11) 송시경, 『위원회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pp. 13-15.



###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현황 및 인식 분석

#### 1.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현황 및 여건 분석

##### 1) 문화현황

###### (1) 일반현황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인구는 2008년도 12월 현재 565,520명이다. <표 14> 제주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인구수는 55만에서 미세한 증가폭을 보이다 2006년도에 55만을 돌파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사회와 다문화가족의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핵가족화에 의해 세대 당 인구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과 산남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산북지역인 제주시에 72.7%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인력들도 산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균등한 문화향유권을 전제로 하였을 때 심각한 지역편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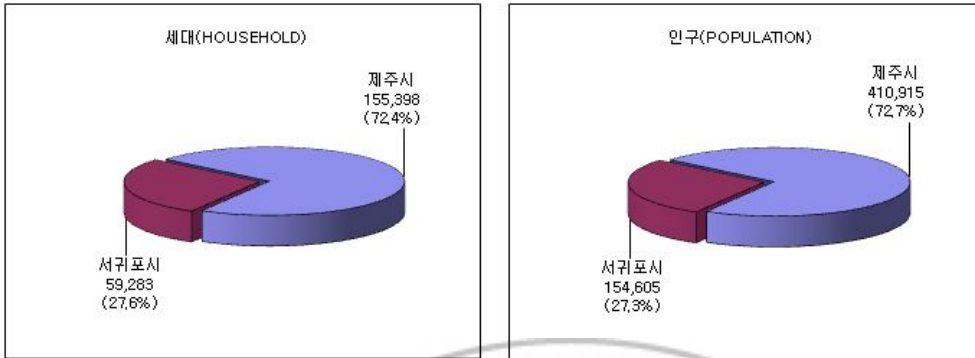
<표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변화 추이

연도	세대	인구			인구 밀도 (명/1km <sup>2</sup> )	면적 (km <sup>2</sup> )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인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03	194,855	553,864	275,632	278,232	299.75	1,847.77	2.8	50,584	1,567	791	776
2004	199,989	557,235	277,664	279,571	301.50	1,848.21	2.8	53,332	1,873	971	902
2005	204,635	559,747	279,415	280,332	302.85	1,848.27	2.7	55,795	2,178	1,553	625
2006	208,424	561,695	280,711	280,984	303.90	1,848.44	2.7	58,685	3,199	1,857	1,342
2007	211,850	563,388	281,576	281,812	304.79	1,848.43	2.7	61,814	4,130	2,330	1,800
<b>2008</b>	<b>214,681</b>	<b>565,520</b>	<b>282,937</b>	<b>282,583</b>	<b>305.93</b>	<b>1,848.50</b>	<b>2.6</b>	<b>64,285</b>	<b>4,902</b>	<b>2,849</b>	<b>2,053</b>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09.

<그림 2> 세대 및 인구

(단위: 세대·명,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09. 재구성.

## (2) 제주지역 문화행정 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자체에서 행정시로 전환됨으로써 제주도 문화예술을 주도할 행정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 내에 문화정책과이다. 문화정책과는 문화관광교통국의 주무과이기도 하다. 문화정책과는 5계 1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문화시설계의 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남제주군을 비롯한 산남 지역의 문화시설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내 문화행정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살펴보면 조례 19건, 규칙 4건 등 총 23건이다.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시설 관련 조례가 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문화정체성 관련 조례가 4건으로 많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문화산업 관련 조례가 각 1건씩이 있다. 2009년 6월에 개관한 제주도립미술관과 2010년 5월에 개관 한 제주아트센터운영 조례가 신설 되었다. 또한 몇 년전부터 지적 되어 오던 문화산업 관련된 조례도 신설 되었다.

현재 <표 16>과 같이 20여개의 문화예술관련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이들 조례 중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그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시대 문화진흥의 본질적 취지를 담은 <(가)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기 본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난립한 부문별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육성과 관련하여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장단기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조례 및 규칙

구분	조례	규칙
문화예술진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시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 제주도김정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주도해변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주도민속관광타운설치및운영조례 제주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주도민속관광타운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문화예술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문화예술단체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문화원	제주도지방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문화정체성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 제주특별자치도디지털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	
문화산업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	

### (3)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지원 현황 추이

오늘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논의로는 바우몰(W.J.Baumol)과 보웬(W.G.Bowen)의 이론,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관한 논의, 복지와 관련된 논의,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 등으로 요약 되는데,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확충이 필요하다. <표 17>과 같이 문화예술 관련 재정은 전체예산의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비중을 매년 일정 비율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재원만이 아니라 민간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련 재정 현황('07년도~'10년도)

(단위: 천원)

연도	전체예산	문화예산	비중
2007년도	<b>2,312,042,077</b>	<b>45,453,810</b>	1.97%
2008년도	<b>2,472,269,801</b>	<b>64,275,955</b>	2.60%
2009년도	<b>2,696,185,473</b>	<b>49,862,505</b>	1.85%
2010년도	<b>2,749,784,762</b>	<b>64,207,318</b>	2.33%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진흥 재원은 제주문예진흥기금이다. 기금운용은 2001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2년 지원방법을 개선, 기존 장르별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목적 중심의 사업별 지원체제로 전환하였다. 2006년에는 제주문예진흥기금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4년간의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안을 내놓

기도 하였다. 개선안에는 기존 1년 단위의 지원체계에서 다년간 지원체계를 일부 지원유형에 도입하였고, 2006년도까지 시행하였던 휴식제를 과감히 폐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제주지역 예술기금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과 사업편성지침에 따라 기존 제주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통합되는 등 예술지원 정책이 달라진다.

지역협력형사업은 중앙문예진흥기금사업 중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는 대신 간접지원을 늘리고 사후 평가체제를 강화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중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고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이 들어있다. 지역문화예술기획은 공공미술사업이 한 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분야엔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제주를 포함 광주, 경북, 경남도는 중앙문예진흥기금 기준액 대비 매칭액이 1대 1에 못미쳤다. 지역협력형 사업은 최소 1대 1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지역은 부담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예술지원 총액이 예년보다 많아질 예정이지만 그것이 지역문화예술계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일지는 미지수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매칭방식이나 사업내용을 두고 지역의 실정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만 해도 주요 공연장에 공립예술단체가 입주했거나 예정된 상태에서 민간단체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란 지적이 있다. 이들 사업은 특히 2012년이면 모든 시·도에 들어서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재단이 그에 걸 맞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던졌다.

<표 18>을 살펴보면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지원 내역을 보면 총 평균지원액이 3백 5십 1만 7천원인데 이는 15개 광역시·도의 평균 지원액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들고 있다. 이는 소액다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액소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표 19>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무대공연작품 지

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다. 지원규모는 각각 2억2천4백만원과 3억2천만원이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사랑티켓 지원사업으로 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18> 연도별 제주문예진흥기금<sup>1)</sup> 지원 내역(정기지원)

연도	지원신청 건수	지원 건수	지원 유형	총지원 금액(천원)	평균 지원액(천원)
2002	201	104	9	468,200	4,502
2003	165	105	9	407,500	3,881
2004	221	122	10	443,000	3,631
2005	248	126	10	450,500	3,575
2006	182	132	10	531,000	4,023
2007	260	120	9	529,000	4,408
2008	246	122	9	525,000	4,303
2009	251	122	8	515,000	4,221
합계(평균)	1,774	953		3,869,200	3,517

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자료

<표 19>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원사업 현황(2009년도)

사업명	지원 총 예산(천원)	지원 기관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사업	170,000	제주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242,000	"
제주사랑티켓 지원 사업	60,000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바우처 사업	62,000	"
공연예술단체 육성사업	95,000	"
합계	629,000	

#### (4) 제주지역 문화인프라의 조성현황

<표 20>과 같이 나타난 문화기반시설들의 운영 현황은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제주도의 공연시설은 2003년을 기점으로 민간공연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영화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변화와 일반인들의 문화트렌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인 문화트렌드가 제주도에도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 일부 시설은 제주시 지역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랑은 서귀포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실은 2006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7년도 기준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문화시설 운영현황

연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관	미술관	화랑	시군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수련 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04	8	8	25	2	7	2	10	-	4	-	1
2005	7	9	32	17	17	2	10	-	4	-	-
2006	6	9	33	9	17	2	9	-	4	-	-
2007	6	10	36	9	9	2	9	-	3	-	-
<b>2008</b>	<b>6</b>	<b>11</b>	<b>38</b>	<b>9</b>	<b>9</b>	<b>2</b>	<b>9</b>	-	<b>3</b>	-	-
도	2	-	-	-	-	-	-	-	1	-	-
제주시	3	7	30	6	3	1	7	-	1	-	-
서귀포시	1	4	8	3	6	1	2	-	1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5-2009 제주통계연보 조합

박물관 운영현황 역시 문화예술분야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제주도의 박물관 입장객(관람객)은 <표 21>과 같이 2004년부터 증가와 감소

가 반복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의 입장객 증가는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상 제주도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문화 콘텐츠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21> 박물관<sup>1)</sup> 운영현황

연별	입장자	계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보석	초제	나무	골사패갑	지	피모	사직	종자	기타
2004	1,148,920	42,224	717	-	-	-	-	-	-	-	-	-	-	-	-
2005	1,140,062	48,105	864	-	-	-	-	-	-	-	-	-	-	-	-
2006	1,231,005	47,564	808	-	-	-	-	-	-	-	-	-	-	-	-
2007	962,940	49,794	1,027	-	-	-	-	-	-	-	-	-	-	-	-
<b>2008</b>	<b>1,258,275</b>	<b>52,309</b>	<b>1,169</b>	<b>5,631</b>	<b>974</b>	<b>793</b>	<b>165</b>	<b>1,053</b>	<b>315</b>	<b>193</b>	<b>2,534</b>	<b>61</b>	<b>2,475</b>	<b>3</b>	<b>36,943</b>
국립 제주 박물관	254,366	9,833	398	3,708	974	558	165	49	315	193	1,725	61	1,615	3	69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	998,909	36,794	-	-	-	-	-	-	-	-	-	-	-	-	36,794
제주대 박물관	5,000	5,682	771	1,923		235		1,004			809	860			8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09.

공공도서관도 제주도 문화예술발전의 지표로 볼 수 있다. <표 22>와 같이 도서관은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이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이용자, 자료수, 도서관수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간이용책수와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도서관 현황

연도별	도서관 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자수	연간 대여책수	직원 수	예산
			계	도서	비도서				
2004	18	6,208	1,075,639	1,017,883	57,756	1,550,648	909,175	118	6,981,291
2005	19	6,265	1,217,796	1,150,875	66,921	1,906,326	1,021,245	106	7,212,872
2006	21	7,237	1,356,047	1,287,216	68,831	2,334,659	1,353,864	142	7,857,599
2007	21	6,269	1,381,439	1,330,068	51,371	3,519,297	1,126,971	138	10,455,647
<b>2008</b>	<b>22</b>	<b>7,448</b>	<b>1,507,201</b>	<b>1,456,023</b>	<b>51,178</b>	<b>2,366,188</b>	<b>1,155,299</b>	<b>286</b>	<b>9,142,083</b>
이연도사랑 도서관	1	80	1,800	1,300	500	576,197	50,000	2	23,000
송악 도서관	1	272	82,603	81,520	1,083	35,760	40,799	6	128,189
제남 도서관	1	270	69,926	68,306	1,620	39,405	23,123	5	137,459
서귀포 학생문화원 도서관	1	307	127,200	125,175	2,025	57,425	11,782	6	386,236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1	606	69,223	63,687	5,536	144,905	64,680	8	157,046
서귀포시 삼매동도서관	1	211	64,510	63,629	881	95,391	22,248	8	226,194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1	212	30,306	28,933	1,373	96,071	80,687	7	121,981
서귀포시 서부도서관	1	200	13,508	13,481	27	118,573	37,364	7	102,602
성산일출 도서관	1	277	65,180	46,807	18,373	42,030	37,300	4	207,082
안덕산방 도서관	1	120	42,197	40,704	1,493	33,465	70,138	5	144,932
표선 도서관	1	134	41,190	39,871	1,319	41,990	16,104	5	146,388
서귀포시 기적도서관	1	280	24,460	23,536	924	61,643	105,900	7	100,484
제주 도서관	1	529	199,917	185,877	14,040	317,578	253,684	15	559,102
한수폴 도서관	1	264	86,640	86,002	638	44,132	135,874	5	163,099
동녘 도서관	1	91	58,162	56,084	2,078	49,832	41,889	4	131,982
제주우당 도서관	1	1,044	210,341	189,446	20,895	351,928	371,100	20	1,222,923
제주탐라 도서관	1	863	154,154	135,210	18,944	384,341	294,766	13	775,883
애월읍 공공도서관	1	310	40,639	39,306	1,333	60,245	41,303	3	366,963
조천읍 공공도서관	1	125	37,622	35,511	2,111	67,352	88,476	5	134,227
한경면 도서관	1	106	28,716	27,300	1,416	27,266	24,912	4	154,789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도서관	1	106	28,716	27,300	1,416	27,266	24,912	4	154,789
제주기절의 도서관	1	150	33,647	32,308	1,339	160,827	153,987	3	345,72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09.

주 : 2008년도 자료는 국가통계도서관시스템(09.11.12) 수록된 자료임.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대표적 문화기반시설로는 <표 23>과 같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외의 문화기반시설들도 운영주체가 바뀌고 있지만 이번 논문에는 6개 시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도문화회관과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총 4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 문화진흥본부는 전통문화의 전승보급, 문화회관 및 박물관 운영, 공연·전시계획의 수립 및 유치, 도립예술단 운영, 국내·외 예술단 교류, 공연물의 제작 및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산재해 있는 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적 자료를 조사 연구, 수집하고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고·민속분야 유물 9,158점과 자연사적 자료 26,108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 32,027㎡의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7,068㎡ 규모로 지어졌다. 181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제주도립미술관은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저지리에 2,083㎡의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07년 9월에 개관하였다. 제주돌문화공원 14,167㎡의 부지에 동양최대의 돌문화공원으로 지어졌다. 제주아트센터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0억여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456㎡으로서 규모면에서는 공연장 1,184석으로 제주도내 최대이면서 무대시설도 현재 문화회관을 능가하는 시설을 갖추었다.

<표 23>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면적	운영예산 (백만원)	운영인력	조직	운영형태	개관연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문화회관	7,222㎡	2,437	25	1부 2과	사업소	'88. 8.	도립예술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5,964㎡	1,544	40	4과 1담당	"	'84. 5.	
제주도립미술관	7,087㎡		13	1팀 1실	"	'09. 6	
제주현대미술관	2,083㎡		10	1관	"	'07. 9	
제주돌문화공원	14,167㎡			1단 4팀	"	'06. 6	
제주아트센터	8,456㎡	20,000			"	'10. 5	도립관협약단 입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재가공.

<표 24>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연시설 현황

구 분	공 연 장	계
종합공연장	제주해변공연장, 제주학생문화원, 한라아트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김정문화회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7
일반·소공연장	서귀포시민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제주매직월드, 제주시민회관, 제주시청 소년수련관 대강당, 한라공연장, 해피타운, 간드락 소극장, 미예랑, 세이레아트센터, 자작나무숲	11
야외공연장	동홍야외공연장, 이레제주조랑말타운, 천지연야외공연장, 제주산업정보대학 야외공연장, 저지문화예술인 야외공연장	4
기타공연장	제주그린리조트 공연장, 남제주군청소년수련관 공연장	2
영 화 관	프리머스시네마 제주(7관), 코리아극장(3관), 씨지브이 제주(5관), 씨너스 제주(9관), 롯데시네마 제주(6관), 롯데시네마 서귀포(7관), 씨네메드자동 차극장(1관)	7(38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재가공.

<표 25>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시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계
미 술 관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서귀포시이중섬미술관, 금오당미술관, 김영갑갤러리미술관, 자연사랑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소암현충화기념관,	7
전 시 실	갤러리 나비, 갤러리 다비치치, 갤러리 모앙, 갤러리 찰나, 갤러리 하루, 갤러리 R, 갤러리다비치리, 갤러리세월그림, 갤러리유현재, 갤러리카페 미루나무, 갤러리하우스, 그리미갤러리, 대안공간 제주, 라마다아트갤러리, 먹글이있는집, 목가갤러리, 문화공간 제주아트, 박여숙화랑 제주, 산갤러리, 산경도예전시실(흙으로만나는사람들), 서귀포시립도서관전시실, 서귀포학생문화원전시실, 세심재갤러리, 세종당화랑, 신산갤러리, 아트센터 갤러리수, 아트스페이스 씨, 연갤러리, 열공갤러리,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공보문화센터 탐라홀, 전가조형연구소전시실, 제주도예원 전시실, 제주도예촌 전시실, 제주조각공원전시실,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중문관광센터전시실(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중앙갤러리, 포토갤러리사진문화원, 포토갤러리자연사랑, 풍야갤러리 문화원, 한라아트홀 전시실, 현인갤러리, 호 갤러리, 흥갤러리	45

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예연감』, 2009. 재가공.

위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보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있는데 산남지역(한라산을 기준으로 하여 서귀포 쪽)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서귀포 지역의 문화예술 전

문 종합문예회관이 건립 중이다. <표 26>과 같이 전국 대비 문화기반시설을 살펴 보면 제주도는 4.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국의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은 사립 12.0%로 공공부문이 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공공부문이 14.2%, 사립 10.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문예회관은 1.2%, 문화원은 0.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6> 전국대비 제주 문화기반시설 현황

(2008.12.31 기준)

시·도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741	644	397	229	18	707	579	282	215	82	128	28	95	5	167	223
서울	243	78	52	22	4	127	97	17	58	22	30	1	27	2	14	24
부산	53	24	11	12	1	14	11	4	2	5	3	1	1	1	6	9
대구	43	18	3	12	3	9	9	4	2	3	0	0	0	0	8	8
인천	47	17	9	8	0	17	14	7	6	1	3	1	2	0	5	8
광주	37	16	11	5	0	12	6	4	0	2	6	1	4	1	4	5
대전	43	17	15	2	0	19	15	3	6	6	4	2	2	0	2	5
울산	20	9	5	4	0	4	4	3	0	1	0	0	0	0	2	5
경기	308	130	113	11	6	123	97	40	49	8	26	5	20	1	24	31
강원	140	45	22	22	1	64	58	40	13	5	6	3	3	0	13	18
충북	87	28	13	15	0	38	32	20	8	4	6	2	4	0	9	12
충남	117	46	26	20	0	42	37	22	13	2	5	0	5	0	12	17
전북	105	42	24	17	1	32	29	20	5	4	3	2	1	0	17	14
전남	125	52	31	21	0	38	26	20	4	2	12	2	10	0	13	22
경북	161	54	25	28	1	65	60	39	10	11	5	1	4	0	19	23
경남	134	46	22	24	0	51	46	28	13	5	5	3	2	0	17	20
<b>계</b>	<b>1,741</b>	<b>644</b>	<b>397</b>	<b>229</b>	<b>18</b>	<b>707</b>	<b>579</b>	<b>282</b>	<b>215</b>	<b>82</b>	<b>128</b>	<b>28</b>	<b>95</b>	<b>5</b>	<b>167</b>	<b>223</b>
<b>제주</b>	<b>78</b>	<b>22</b>	<b>15</b>	<b>6</b>	<b>1</b>	<b>52</b>	<b>38</b>	<b>11</b>	<b>26</b>	<b>1</b>	<b>14</b>	<b>4</b>	<b>10</b>	<b>0</b>	<b>2</b>	<b>2</b>
<b>전국 대비</b>	<b>4.5</b>	<b>3.4</b>	<b>4.0</b>	<b>2.6</b>	<b>5.5</b>	<b>8.7</b>	<b>5.6</b>	<b>3.9</b>	<b>12.0</b>	<b>1.2</b>	<b>10.9</b>	<b>14.2</b>	<b>10.4</b>	<b>0.0</b>	<b>1.2</b>	<b>0.9</b>

자료 : 문화관광부, 2009 전국문화기반시설

**(5) 제주지역 문화예술 현황**

**① 문화예술단체**

제주도내 문화예술의 창작 주체인 문화예술단체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26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문화예술 단체도 산북(제주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의 기준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역별 현황은 생략하였다.

먼저 주요 문화예술단체에는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가 있다.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1962년 문인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4개 단체로 결성되어 40여년 넘게 제주도내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들을 펼치며 발전하여 현재 1개 지부와 10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는 1994년 결성되어 제주도의 아픔인 4·3항쟁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개발만능주의에서 소외된 제주인들이 자아를 찾아가는 노력들이 합치되어 제주문화예술계 주제와 표현양식의 다양성 확보, 젊은 피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현재 8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장르별 단체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음악분야가 76개 단체(28.5%)로 가장 많고 미술 분야 34개 단체(12.7%), 문학과 서예 분야 각 30개 단체(11.2%), 사진 분야 29개 단체(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총괄	문학	미술	사진	서예	건축	음악	연극	무용	연예	국악	문화	영화	도립	합계
2005	3	21	39	28	29	1	47	9	12	1	20	13	4	5	232
2006	3	22	38	30	28	1	59	16	17	1	19	14	4	5	257
2007	3	23	33	30	28	1	76	15	14	1	16	10	3	5	258
2008	3	28	33	30	30	1	74	15	16	1	20	11	3	5	270
2009	3	30	34	29	30	1	76	15	16	1	21	4	2	5	26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재가공.

제주도 내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은 문학 400명, 미술 269명, 서예 1122명, 사진 288명, 건축 30명, 음악 260명, 연극 89명, 무용 61명, 연예 126명, 국악 399명, 영화 387명 등 총 343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통계는 중복 가입, 문화예술인 기준 미수립 등의 이유로 각 장르의 대표 단체들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인 현황

(단위 : 명)

문학	미술	서예	사진	건축	음악	연극	무용	연예	국악	영화	계
400	269	1122	288	30	260	89	61	126	399	387	3,431

자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예연감』, 2009. 재가공.

## ② 문화예술 활동

제주도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장르별 공식 집계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지만 개괄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제주의 대표 문화공간인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의 대관현황을 중심으로 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학 분야는 집계하기 어려워 제외 하였다. 대극장과 소극장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 기간에 대관일수, 공연일수, 공연 횟수, 관람인원으로 분류 하였다. 전시실도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시일수, 전시건수로 나눠 분석하였다. 제2전시실은 2004년 7월에 개관하였기 때문에 6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 되었다.

### 가. 공연현황(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기준)

공연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관람객수는 대극장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2004년도를 제외하고 해 마다 줄어들다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극장은 10,000명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극장 대관 일수는 2005년도가 335일로 가장 많고 공연 횟수에서 대극장은 2004년 230회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2007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평균 관람인원을 살펴보면 대극장은 객석 892석(장애인석10석 포함)을 기준으로 2007년도부터 50%(446명)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장은

객석 200석에서 2006년도까지 50%도 넘지 못하다 2007년도부터 50%를 넘고 있는데 이는 공연예술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연 현황

연도별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대극장	대관일수	258	252	249	201	335	253	214
	공연일수	-	252	249	201	154	195	165
	공연횟수	260	253	241	184	173	230	206
	관람인원	110,787	107,854	104,415	88,231	89,595	106,990	88,135
	평균 관람인원	426	427	433	480	518	465	428
소극장	대관일수	195	213	182	168	214	192	183
	공연일수	-	213	182	168	150	119	133
	공연횟수	142	115	151	187	170	141	175
	관람인원	16,550	12,671	15,469	14,315	12,650	13,230	14,643
	평균 관람인원	116	110	102	77	74	94	8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재구성.

### 나. 전시현황(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기준)

전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전시일수는 1년 365일 중 년 340일 이상이 대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시 현황을 보면 전시분야의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전시실을 대관하기 위해서 제주미술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전시실 부족도 있지만 제주미술인들의 사설갤러리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전시실처럼 지명도가 높고, 주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이다. 사설갤러리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사설갤러리 대관 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지만 사설갤러리의 대관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다.

<표 3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전시 현황

구분		연도별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전시일수	전시건수							
제1전시실	전시일수	365	362	359	353	345	345	345	345	361
	전시건수	68	63	62	62	58	58	58	58	61
제2전시실	전시일수	360	363	359	349	360	148	148	148	-
	전시건수	65	62	60	58	61	26	26	26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 제2전시실 개관 : 2004.7.10)

### 다. 문화재 현황

<표 31>을 보면 현재 35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는 90점, 도지정문화재는 268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보는 1점도 없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천연기념물이 총 90점에서 42점(46.7%)을 도지정문화재에서는 기념물이 총 268점에서 132점(49.3%)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

지역별	종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계		90		6	6	42	1	5	9	21	268	29	19	132	80	8
도 일 원		2				2										
제 주 시		45		5	5	21		4	3	7	173	19	13	87	47	7
서귀포시		43		1	1	19	1	1	6	14	95	10	6	45	33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재구성.

다음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현황이다. <표 32>를 보면 2009



년 12월 현재 제주에는 기·예능 보유자 16명, 전수교육보조자 13명, 기능보유 단체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1개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운영 중이다.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가·예능 보유자

구분	계	명예 보유자	보유자	교육 보조자	이수생	전 수 장학생	일 반 전수생	보 유 단 체
계	75	3	16	13	12	26	5	5
국가지정	26	3	4	3	12	3	5	1
도 지 정	49	0	12	10		23		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10. 재가공.

## 라. 문화예술교육

### (가) 문화예술교육 기관

제주도 내에는 문화예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예술 인력의 재생산이 미흡하다. 현재 제주에는 예술 인력의 조기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예술관련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양적,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의 문화예술관련 학과는 총 4개 대학 9개학과에 입학정원이 334명이다. 전체 입학정원 가운데 미술과 디자인 등의 전시 관련학과가 58.4%, 공연예술관련학과인 음악이 33.5%를 차지하고 있다. 공연예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극과 무용학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는 예술대학이 없어 문화예술 관련 학과는 인문대학에 편성되어 있다. 또한 예술 시장의 공급자인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있지만 이러한 공급자(문화예술인)와 수요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할 예술경영, 문화기획, 문화행정, 예술기획 등의 관련된 교육기관과 민속의 보고인 제주도에 전문적인 민속학과나 제주학과가 전무하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는 인력개발원(구 공무원교육원)에 문화행정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내 예술관련 학과 현황

분야별	대학교		전문대학교		입학정원 계(%)
	학과수	입학정원	학과수	입학정원	
문학	1	27			27(8.1)
음악	1	32	2	80	112(33.5)
무용					
연극·영화					
미술·조형	1	31	1	40	71(21.3)
디자인	1	49	1	40	89(26.6)
사진·만화·영상·예술			1	35	35(10.5)
합계	4	139	5	195	334(100.0)

**(나) 문화예술교육 사업**

창작자 지원 위주에서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전환 중 대표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는 예술강사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이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지역기반시설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이 있다. 제주 지역은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09년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그림 3>과 같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진흥원 업무 이관사업<sup>12)</sup>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 문화예술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12)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국악을 제외한 5개 분야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 하고 있음.



<그림 3>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구성도

2009년도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sup>13)</sup>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주요사업 추진실적

- 아트리치프로그램 공모 선정 사업 : 총 58건 지원, 28건 선정
- 문화예술교육 연수 : 총 3회 개최
- 개발·조사 사업
  - 교재개발 참여 연구진 : 총 9인
  - 지표조사 참여 조사진 : 총 5인

□ 주요사업 성과

- 아트리치프로그램 공모 선정 사업 대상 : 1,090여명
- 문화예술교육 연수 참여 : 70여명
- 개발·조사 사업
  - 교재개발 : 총 1,000권 발행
  - 지표조사 : 총 200부 발간

13)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명 임.

<표 34>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일정

일 자	사 업 내 용
7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TReach PROGRAM공모사업 (집행액:189백만원/현재기준)</li> <li>- 문화예술교육간담회 실시(2009.5.27)</li> <li>- 사업설명회 개최(2009.6.25)</li> <li>- 15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li> <li>- 평가단10인 구성(전문가 5인, 모니터 5인)</li> <li>- 센터 실무자 수시참관 및 기록</li> <li>- 교육대상 : 유아, 학생, 주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피해자(이주여성), 해녀, 소외계층 등 1,090여명</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문화예술교육관련 공공문화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조사</li> <li>- 연구진 5인 구성, 7~12월(3개월)</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100배 즐기기"교재개발</li> <li>- 연구진 9인 구성, 9~12월(4개월)</li> </ul>
10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
11월	○ 제주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연수
12월	○ 제주지역아동센터종사원 문화예술교육 입문과정

□ 사업 추진 성과

- 광역센터로 지정되면서 예산의 확대와 교육대상의 범위가 도민전체로 확대됨
- 다문화가정피해여성, 해녀, 지역아동센터, 장애시설 및 요양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 공모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선정·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신설
- 아트리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단체 대상으로 회계 및 정산관련 워크숍을 진행
- 교재개발과 지표조사 등을 통해 제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환경조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조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

## 마. 문화일반

2008년에 개최된 축제는 <표 35>와 같이 총 61건이다. 이 표를 통해서 제주도는 1년 내내 축제가 이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제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대표적 축제인 탐라문화제가 유일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표 35> 2008 제주특별자치도 내 축제 현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 수	5	2	3	8	4	5	3	9	3	14	3	2	<b>61</b>
백분율	8.2	3.3	4.9	13.1	6.6	8.2	4.9	14.8	4.9	23.0	4.9	3.3	<b>100.0</b>

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예연감』, 2009. 재구성.

##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여건분석

### (1) 제주문화의 여건분석

공연장, 전시시설, 공공도서관 등은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의 확보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의 불편성 및 근접성이 떨어져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기회가 적고 서울중심의 문화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산업분야의 서울집중도가 70%를 넘을 정도로 문화분야의 서울집중도는 타 분야에 비해 더욱 강한 추세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 (2) 제주문화의 SWOT 분석

제주문화의 SWOT 분석을 살펴보면 강점(Strength)으로는 관광매력 창출을 위한 콘텐츠와 장소성 보유, 지역에 대한 높은 브랜드 파워를 들 수 있고 약점(Weakness)으로는 제주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문화기반으로한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미수립, 기회(Opportunity)는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문화의식 및 문화소비 계층증가, 올레 사업등의 성공에 의해 지속

적인 관광객 유입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협(Treat)은 유가인상과 경제 불황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 관광도시로서의 우월감에 의한 자만, 제주 특별자치도의 정책 중 우선권 획득에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표 36> 제주문화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관광매력 창출을 위한 콘텐츠, 장소성 보유 - 지역에 대한 높은 브랜드 파워	- 제주도민들의 창의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 문화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미 수립
기회(Opportunity)	위협(Treat)
-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일반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 소비 계층 증가 - 올레사업등의 성공에 의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 유가인상과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 - 관광도시로서의 우월감에 의한 자만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중 우선권 획득에 어려움.

### (3)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sup>14)</sup>

#### ① 계획수립의 배경

- 제주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시계획, 지역경제, 환경, 사회복지, 교통, 관광, 여성 등의 각 분야별 계획 및 시정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제주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형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왔음. 이러한 종합계획 하에 ‘문화’부문은 국내 최대의 관광지라는 지정학적 영향 때문에 관광 분야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음.
-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1. 26 공포, 법률 제6643호) 제56조(향토문화의 진흥)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3. 2. 17 확정, 고시)에 따라,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 제주지역 문화예술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제주도 특성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발전전략이 필요함.

14) 제주도,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 2003.

- 하지만 '9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비전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실천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계획'으로 2003년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을 본격적인 문화종합계획으로 수립하면서 문화정책의 종합 지침으로 역할을 하였음.

## ② 목적

-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향해야 할 중·장기적 문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부문별 실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함.
- 향후 수립될 도·시·군별 문화예술 발전 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함.

## ③ 계획의 성격

-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6조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 계획임.
- 제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수립되는 중·장기 발전 계획임.
- 제주도민의 의식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이념에 토대를 두고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작성된 실행 계획임.
- 제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작성된 문화예술 부문의 최상위 계획임.

## ④ 계획의 역할

- 본 계획은 앞으로 예상되는 21세기 국내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음.
- 본 계획은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문화예술이 개인과 제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함.
  - 제주지역 문화예술이 제주사회의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제주지역 문화예술이 제주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⑤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 기간 : 2003년~2011년(9개년)
- 전반기 : 2003년~2006년/ 후반기 : 2007년~2011년

나. 사업적 범위

- 제주도의 문화예술 부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공공부문사업, 민자사업 등임.

다. 재정적 범위 : 국비, 지방비, 공사, 민자, 기타 자본 등이 모두 포함

라. 실천적 범위

- 핵심과제 사업 등을 선정하여,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함.

마. 공간적 범위 : 제주도 행정 구역 전체(2시2군, 면적 1,847.11km)임.

바. 내용적 범위

- 현황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집행과 관리 등임.

⑥ 세부내용

<표 37>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세부내용

		8개 선도 프로젝트		
선 도 프 젝 트	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립미술관 건립</li> <li>• 제주종합문화예술타운 건립</li> </ul>	2007 ~ 2010	완료
			2005 ~ 2011	미 추진
	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지원</li> <li>• 영상산업도시로의 발전지원</li> </ul>	2005 ~ 2011	추진중(08 지정)
			2004 ~ 2011	완료
	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문예회관</li> <li>• 서귀포종합문예회관</li> <li>• 돌박물관 건립</li> </ul>	~ 2011	완료
		2004 ~ 2011	추진중	
		~ 2005	완료	
	제2장	• 제주도유배문학관	2005 ~ 2011	미 추진



		22개 핵심과제		
핵심 과제	제1장	• 문화예술행사 전문인력 양성	2005 ~ 2011	추진중
	제2장	• 서원, 서당 복원 정비	~ 2005	추진
		• 종교성지 정비, 복원사업 지원	~ 2011	추진
		•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 2005	추진
		• 문화재 발굴 보존 지원	~ 2011	추진
		• 항몽유적지 정비	~ 2011	추진중
		• 서불과지 유적지 개발	~ 2005	추진
		• 민속예술공연장 시설	2006 ~ 2011	미 추진
	제3장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 조기조성	~ 2011	미비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 2011	추진
제4장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분리	2007 ~ 2011	미 추진	
	• 감굴박물관 건립	~ 2004	추진	
	• 석주명 기념관	2004 ~ 2005	미 추진	
	• 어촌민속전시관	2004 ~ 2005	미 추진	
	• 제주도문예회관 정비	~ 2006	완료	
	• 한라도서관	~ 2006	완료	
	• 제주문화도서관	2007 ~ 2011	미 추진	
	• 소암현중화 기념관	2004 ~ 2005	완료	
제5장	• 문화생태마을 조성	2005 ~ 2011	미 추진	
제6장	• 제주역사문화마을 조성	~ 2011	미 추진	
제7장	• 일본 오사카지역 향토문화센터 설치	2005	미 추진	
	• 세계적인 문화예술행사 육성	~ 2011	추진	
		29개 일반시책		
일 반 시 책	제1장	• 도내대학에 문화예술관련학과 신설 지원	2005 ~ 2011	미 추진
		• 문화예술특기생 모집	2005 ~ 2011	미 추진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과정 장학금 지원	2005 ~ 2011	미 추진
	제2장	•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 2011	추진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2011	추진
		• 웅기문화 보존 (대정읍 중심)	2005 ~ 2011	추진
		• 남원읍 산마장 복원	2007 ~ 2011	추진
		• 제주민요, 굿 신화등 전통문화영상화 추진	~ 2011	추진
		• 전마을의 향토자료수집 및 책자화	2005 ~ 2011	추진 중
	제3장	• 폐교활용 예술창작 공간 조성	2005 ~ 2006	추진계획
		• 제주문화예술정보화사업 추진	2005	미 추진
		• 제주실버예술단 창단	2006 ~ 2011	미 추진
	제4장	• 우도 해녀박물관	2005 ~ 2011	미 추진
		• 추자도 어업박물관	2005 ~ 2011	미 추진
		• 가파도 해양박물관	2005 ~ 2011	미 추진
		•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및 정보화사업지원	~ 2005	추진중
	제6장	•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활동비,자료수집)	~ 2011	추진
		• 문화의집 운영지원	~ 2011	추진
• 문화학교 육성지원(문광부지정)		~ 2011	추진중(미비)	
• 문고운영지원 (자료수집비)		~ 2011	미 추진	

구분	편·장	사업명	추진기간	비고
<b>29개 일반시책</b>				
일 반 시 책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전통문화축제의 개발</li> <li>• 제주의 간행</li> <li>• 제주역사문화연구총서 간행</li> <li>• 마을문화패 육성</li> </ul>	2005 ~ 2011 ~ 2005 ~ 2011 ~ 2011	미 추진 발간 완료 미 추진 미 추진
	제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해외교류행사</li> <li>• 제주국제자연미술전</li> <li>• 번역출판사업</li> <li>• 국제예술행사 유치</li> <li>• 전국예술행사 유치</li> </ul>	~ 2011 2005 ~ 2011 2005 ~ 2011 ~ 2011 2005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추진 중 추진 중
<b>91개 장기연구과제</b>				
장 기 연 구 과 제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거리 조성 확대</li> <li>• 전통문화상품개발 지원</li> </ul>		추진중 미 추진
	제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종합자료관 설치</li> <li>• 삼양동 선사유적지</li> <li>• 민속촌 시설</li> <li>• 제주방언사전 발간</li> <li>• 제주방언지도 작성</li> <li>• 제주방언연구소 설립</li> <li>• 제주방언자료수집 및 발간</li> <li>• 문화재보존진흥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li> <li>• 전통문화사전 발간</li> <li>• 근대건조물의 보존과 상품화</li> <li>• 민속지리지 및 민속지도 제작</li> <li>• 일본군 전적비 정비</li> <li>• 4·3사전 유적지 보존</li> <li>• 한국전쟁 관련 전적지 표석세우기 및 복원</li> <li>• 문화재 NGO 단체지원 및 협력망 구축</li> <li>• 문화재 지킴이 활성화 지원</li> <li>• 전통문화 전문가 과정 신설 지원</li> <li>• 제주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li> <li>• 유배인 관련 유적지 정비</li> <li>• 절부암, 충효비 관련 유적 정비</li> <li>• 서귀진성 정비 및 체계적 관리</li> <li>• 고산리 유적 보존</li> <li>• 탐라개국신화 문화자원화 지원</li> <li>• 공신정 복원</li> <li>• 파초일엽 자생지 복원</li> <li>• 김녕굴 및 만장굴 보존관리 계획 수립</li> <li>• 갈옷의 관광 상품화</li> <li>• 용기박물관 건립</li> <li>• 전통음식문화의 관광 상품화</li> <li>• 전통음식박물관 건립</li> </ul>		미 추진 완공 미 추진 추진 중 미 추진 추진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추진 미 추진 추진 추진 미 추진

구분	편·장	사업명	추진기간	비고
장 기 연 구 과 제	제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대할망상 건립</li> <li>•농경신 자청비(세경신) 건립</li> <li>•제주해녀상 건립</li> <li>•제주정신문화코스 개발</li> <li>•제주의 신화 오페라 개발</li> <li>•용연기우제 전설 오페라 개발</li> <li>•전통문화보존관리 연구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추진</li> <li>미 추진</li> <li>추진</li> </ul>
	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문화예술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li> <li>•시설전시설 지원</li> <li>•문학비 건립 지원</li> <li>•제주문학기행코스 개발 지원</li> <li>•청년예술인 육성지원</li> <li>•제주문화예술 정보은행 개설</li> <li>•제주예술원 설립</li> <li>•제주메세나 부문상 제정</li> <li>•청소년문화체험기회 확대</li> <li>•제주도일반회계 지원금 증액</li> <li>•제주축제 타스크포스 결성</li> <li>•공연단체 활동공간 확보 지원</li> <li>•공연단체 작품활동 지원</li> <li>•작업공간과 전시작품 활용 지원</li> <li>•문학, 출판 등의 진흥지원</li> <li>•영상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li> <li>•출향예술인 목록 작성</li> <li>•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li> <li>•청소년문화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추진 중</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추진</li> <li>추진 중</li> <li>추진</li> <li>추진</li> <li>미 추진</li> <li>추진</li> <li>미 추진</li> </ul>
	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페라하우스 건립</li> <li>•군단위문화예술센터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ul>
	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li> <li>•신화, 전설 문화산업 콘텐츠 육성</li> <li>•영상테마파크 조성</li> <li>•영상미디어센터 설립</li> <li>•영화제 유치</li> <li>•국제방송영상경연시 행사 유치</li> <li>•디지털영화 제작 환경 육성</li> <li>•영상문화예술산업대학 설립</li> <li>•국제문화예술행사 참석 지원</li> <li>•제주국제문화교류정보문화센터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추진</li> <li>추진</li> <li>과업 제외</li> <li>과업 제외</li> <li>과업 제외</li> <li>과업 제외</li> <li>과업 제외</li> <li>과업 제외</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ul>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학 석사과정 신설 지원</li> <li>•도내 각 마을의 마을지 발간 지원</li> <li>•제주학자료실 운영 지원</li> <li>•문화복지지원단 설치</li> <li>•문화, 역사마을 추진</li> <li>•읍면별 민속보존회 설립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추진</li> <li>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미 추진</li> <li>추진</li> </ul>

구분	편·장	사 업 명	추진기간	비 고
장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획전문가 양성 지원</li> <li>• 문화봉사활동 운영 지원</li> <li>• 문화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li> </ul>		미 추진 미 추진 추진
	제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종사자 해외교환 근무 지원</li> <li>• 제주문화예술자료센터 설립</li> <li>• 제주 4·3세계평화인권축제 개최</li> <li>• 제주국제화산축제</li> <li>• 국제신화전설축제</li> <li>• 국제생태환경축제</li> <li>• 세계민속신앙축제</li> <li>• 제주마문화축제</li> <li>• 동북아문명 국제기구 창설</li> <li>• 생태박물관 건립</li> <li>• 화산박물관 건립</li> <li>• 신화박물관 건립</li> </ul>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미 추진

### ⑦ 성과 및 한계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은 제주도의 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종합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들이 백화점과 같이 나열되어 있고 문화예술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계획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9년 기간 동안 수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3년도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등 급격하게 변화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21세기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새 정부의 문화비전 및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예산과 관련하여 2008년 현재 일반회계예산의 1.5%가 문화예술분야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문화예술 관련 각종시설(한라도서관, 한라문예회관, 도립미술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투자비의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투자가 완료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예산은 확보 되어 있어야 순수문화예술창작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2011년까지 일반회계예산의 5%를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중장기 계획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현황이 개괄적으로나마 정리해 보았다. 문화예술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의 비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실태를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창작기반시설 부족이다. 문화기반시설의 신축은 증가했지만 창작발전소인 창작기반이 절대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창작기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존에는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공연장이나 전시실, 영화관, 박물관 같은 창작자와 향유자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발표장 개념의 공간을 일컬었다. 현재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의해 정작 필요한 창작 공간에 대하여 등한시 해왔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조례 재정립이다. 현재 20여개의 문화예술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 조례 중에는 서로 유사하거나 그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시대 문화진흥의 본질적 취지를 담은 <(가)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 기본조례>를 제정, 기존의 난립한 부문별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육성과 관련하여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셋째로 문화지표의 중요성이다. 문화실태를 조사하면서 지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문화지표여서 이에 따른 문화지표를 어떻게 제주지역에 맞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에 관한 인식분석

앞에서 공급자 중심의 문화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이 수요자 시각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조사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현재 문화정책 평가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개선 요소 등에 대한 조사이다.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조사의 목적은 제주의 문화예술 수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욱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 (2) 기본설계

- 모집단(Population) : 조사 대상자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표본크기 (Sample size) 및 추출방법
  - 조사의 목표 표본 크기는 15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무작위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목표표본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여 모두 139명(불량응답자 11명 제외)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 (3)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 접근방법 : 메일을 통한 설문, 참가자에 대한 1:1 개별면접 수행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 된 질문지(Structurd Questionnaire)
- 실시 기간 : 2009년 9월 1일 ~ 12월 20일(5개월)

### (4) 자료처리

검증을 거쳐 완성된 설문지는 Editing, Codig, 과정을 SPSS 1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 (5) 자료분석

평균 점수를 계산해야 할 경우는 5점 만점으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평균이 3점 보다 크면 만족도가 높고, 3점 보다 작으면 불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8> 응답자 특성별 분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139	100.0
성별	남 자	67	48.2
	여 자	72	51.8
연령별	2 0 대 이 하	29	20.9
	3 0 대	38	27.3
	4 0 대	39	28.1
	5 0 대	18	12.9
	6 0 대	15	10.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28.1
	대학교 재학, 졸업	69	49.6
	대학원 재학 이상	31	22.3
직업	농 · 수 · 축 산 업	10	7.2
	자 영 업	13	9.4
	생 산 / 기 술 직	8	5.8
	사무/판매/서비스직	24	17.3
	공 무 원	5	3.6
	경 영 / 전 문 직	13	9.4
	전 업 주 부	4	2.9
	학 생	14	10.1
	무 직	5	3.6
	예 술 종 사 자	23	16.5
	기 타	20	14.4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72명(51.8%), 남자가 67명(48.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39명(28.1%), 30대가 38명(27.3%), 20대 이하가 29명(20.9%), 50대가 18명(12.9%), 60대가 15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69명(49.6%),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명(28.1%), 대학원 재학 이상은 31명(22.3%)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판매/서비스직이 24명(17.3%), 예술종사자 23명(16.5%), 기타 20명(14.4%), 학생 14명(10.1%)순으로 나타났다.

## 2) 조사결과 분석

### (1)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5.3%를 차지하였으며, '높다'라는 의견이 11.5%(‘매우 높음’이 0.7%, ‘비교적 높음’이 10.8%), ‘낮다’ 의견 43.2%(‘비교적 낮음’ 37.4%, ‘매우 낮음’ 5.8%)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2.63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1	종합평가2	평균
매우 높음	1	0.7	11.5	21.1	(2.63)
비교적 높음	15	10.8			
보통	63	45.3	45.3		
비교적 낮음	52	37.4	43.2	78.9	
매우 낮음	8	5.8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61.9%를 차지하였으며, '높다'라는 의견이 8.6%(‘매우 높음’이 0.0%, ‘비교적 높음’이 8.6%), ‘낮다’ 의견 29.5%(‘비교적 낮음’ 25.9%, ‘매우 낮음’ 3.6%)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2.76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높음	0	0.0	8.6	22.6	(2.76)
비교적 높음	12	8.6			
보통	86	61.9	61.9		
비교적 낮음	36	25.9	29.5	77.4	
매우 낮음	5	3.6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 (3)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관심 수준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높다'라는 의견이 11.5%(‘매우 높음’이 0.0%, ‘비교적 높음’이 11.5%), ‘낮다’ 의견 53.2%(‘비교적 낮음’ 45.3%, ‘매우 낮음’ 7.9%)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는 2.50점으로 평균 3점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높음	0	0.0	11.5	17.8	
비교적 높음	16	11.5			
보통	49	35.3	35.3		(2.50)
비교적 낮음	63	45.3		82.2	
매우 낮음	11	7.9	53.2		
<b>합계</b>	<b>139</b>	<b>92.10</b>	<b>100.0</b>	<b>100.0</b>	<b>(2.50)</b>

### (4)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내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높다'라는 의견이 6.5%(‘매우 높음’이 0.7%, ‘비교적 높음’이 5.8%), ‘낮다’ 의견 66.9%(‘비교적 낮음’ 46.8%, ‘매우 낮음’ 20.1%)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2.20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높음	1	0.7			
비교적 높음	8	5.8	6.5	8.8	
보통	37	26.6	26.6		(2.20)
비교적 낮음	65	46.8		91.2	
매우 낮음	28	20.1	66.9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2.20)</b>

### (5)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높다'라는 의견이 22.3%(‘매우 높음’이 4.3%, ‘비교적 높음’이 18.0%), ‘낮다’ 의견 39.6%(‘비교적 낮음’ 33.8%, ‘매우 낮음’ 5.8%)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2.81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높음	6	4.3	22.3	36.0	(2.81)
비교적 높음	25	18.0			
보통	53	38.1	38.1		
비교적 낮음	47	33.8	39.6	64.0	
매우 낮음	8	5.8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2.81)</b>

### (6)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높다'라는 의견이 6.5%(‘매우 높음’이 0.0%, ‘비교적 높음’이 6.5%), ‘낮다’ 의견 73.4%(‘비교적 낮음’ 44.6%, ‘매우 낮음’ 28.8%)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2.04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높음	0	0.0	6.5	8.1	(2.04)
비교적 높음	9	6.5			
보통	28	20.1	20.1		
비교적 낮음	62	44.6	73.4	91.9	
매우 낮음	40	28.8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2.04)</b>

**(7) 정책 결정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

문화예술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다른 정책분야와의 비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매우 중요’가 0.0%, ‘비교적 중요’가 6.5%), ‘중요하지 않다’ 의견 23.0%(‘별로중요’ 20.9%, ‘매우별로중요’ 2.2%)로 나타나,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3.31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높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시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중요	16	11.5	44.6	66.0	(3.31)
비교적중요	46	33.1			
보통	45	32.4	32.4		
별로중요	29	20.9	23.0	34.0	
매우별로중요	3	2.2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3.31)</b>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이에 상응 하는 감독과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37.4%를 차지하였으며, ‘잘함’이라는 의견이 35.3%(‘매우 잘함’이 3.6%, ‘비교적 잘함’이 31.7%), ‘못함’ 의견 27.3%(‘비교적 못함’ 24.5%, ‘매우 못함’ 2.9%)로 나타나, ‘잘함’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3.09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잘 함	5	3.6	35.3	56.3	(3.09)
비교적잘함	44	31.7			
보통	52	37.4	37.4		
비교적못함	34	24.5	27.3	43.7	
매우 못 함	4	2.9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3.09)</b>

### (9)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분야에 지방정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높다'라는 의견이 50.4%(‘매우 높음’이 8.6%, ‘비교적 높음’이 41.7%), ‘낮다’는 의견 18.0%(‘비교적 낮음’ 15.1%, ‘매우 낮음’ 2.9%)로 나타나, ‘높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3.38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높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영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높음	12	8.6	50.4	73.7	(3.38)
비교적 높음	58	41.7			
보통	44	31.7	31.7		
비교적 낮음	21	15.1	18.0	26.3	
매우 낮음	4	2.9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3.38)</b>

### (10) 경쟁력 있는 예술분야 선택 후 집중육성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분야 중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그렇다'라는 의견이 65.5%(‘매우 그렇다’가 33.1%, ‘비교적 그렇다’가 32.4%),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14.4%(‘별로 그렇지 않다’ 12.9%, ‘전혀 그렇지 않다’ 1.4%)로 나타나,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3.83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높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경쟁력 있는 예술분야를 집중육성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경쟁력 있는 예술 분야 선택 후 집중육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그렇다	46	33.1	65.5	82.0	(3.83)
비교적 그렇다	45	32.4			
보통	28	20.1	20.1		
별로 그렇지 않다	18	12.9	14.4	18.0	
전혀 그렇지 않다	2	1.4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3.83)</b>

**(11)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응답자 139명 가운데 '담당자 전문성 강화'가 응답자 53명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고 '정책 수립 시 문화예술인 참여'가 응답자 39명으로 28.1%, '시민 의견 적극 반영' 응답자 22명으로 15.8%, '평가철저' 응답자 18명으로 12.9%, '기타' 응답자 4명 2.9%, '선진도시정책수립' 응답자 3명으로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

구분	사례수	백분율(%)
평가철저	18	12.9
담당자 전문성 강화	53	38.1
정책수립 시 문화예술인 참여	39	28.1
시민 의견 적극 반영	22	15.8
선진 도시 정책 도입	3	2.2
기타	4	2.9
<b>합계</b>	<b>139</b>	<b>100.0</b>

**(1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그렇다'라는 의견이 14.4%(매우 그렇다가 0.7%, '비교적 그렇다'가 13.7%),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51.8%(별로 그렇지 않다 45.3%, '전혀 그렇지 않다' 6.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도 2.57점으로 평균 3점 보다 낮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

구분	사례수	백분율(%)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	평균
매우 그렇다	1	0.7	14.4	21.7	(2.57)
비교적 그렇다	19	13.7			
보통	47	33.8			
별로 그렇지 않다	63	45.3	51.8	78.3	
전혀 그렇지 않다	9	6.5			
<b>합계</b>	<b>139</b>	<b>100.0</b>	<b>100.0</b>	<b>100.0</b>	<b>(2.57)</b>

### 3) 분석결과의 종합 논의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자치도로서의 문화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예술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정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정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전반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자치도로의 변화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또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 도민들 스스로 문화적인 수준이 낮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행사의 수준이 낮아 도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 도민들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다른 정책분야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귀분석결과 문화정책의 수립에 도민 의견수렴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부정적인 평가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행정에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을 영입하여 과거와 비교 했을때 전문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행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신뢰도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다섯째, 집단별 분석의 전반적인 경향은 문화예술인이나 일반 도민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 일반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도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이러한 부정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분야에 지방정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수립 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정책 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되려면 지방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된 문화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 IV.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 1. 문화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국내외 사례와 설문을 통해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문화는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정책은 각종 정책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념상 문화정책에 수립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의 위상은 다른 정책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지역 환경의 변화이다. 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사회전반에 걸쳐 끼친 영향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제도 그 자체는 정치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지만 정치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방면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문화가 지역공동체의 지역성을 확고히 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이라는 지역성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정책이 자치도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모든 도시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토대로 활성화에 매진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지역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문화산업이 오늘날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부문에 지방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책우선순위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문화정책부문은 그 어떤 정책영역 보다도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소위 거버넌스적 접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문화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고 또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갖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한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문화정책이 자치도의 중요한 정책의 한 분야인 만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그 정도에 관한 논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화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를 언급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기준의 설정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전이 제시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참여적 요소와 지역 발전적 요소라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화 비전의 정립이다. 모든 도시의 정책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문학, 전시, 공연, 민속문화 등 소위 문화예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안고 있다. 따라서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일정한 수준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와 더불어 문화발전의 장기 계획 즉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실천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보다 더한 권한인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은 시민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 참여적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말한다. 모든 공공서비스가 주민참여를 필요로 하고 주민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문화정책의 경우는 그 어떤 정책분야보다도 대응성이 높아야 한다. 즉 문화예술 부문은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되기보다는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는다. 이때 정책대상 집단 즉 주민들의 참여자체가 정책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도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각계각층의 문화적 특성을 미리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을 토대로 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고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다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평가가 즉각적으로 다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 발전적 차원의 문제이다. 문화정책의 일차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단순한 일회성 내지 시혜성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토대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즉,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가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문화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은 물론이고 국내 최대 관광지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는 제주인 경우 지역 이미지의 변신과 제고를 통하여 지역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

이상 언급한 지역 문화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비전은 다음과 같다.

- 비전 : 차별화된 친환경의 국제문화전원 도시
- 기본목표
  - 고유문화의 특징과 매력적인 도시 정체성, 최고의 자연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고 활기차며 매력적인 국제도시
  - 다양한 인구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공간구성
- 추진전략

<표 51> 제주문화비전 추진전략 내용

추진전략	내용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와 아시아에 관한 작품 원형 제작과 초연 거점화 - 대량 문화예술 공급을 위한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구역 지정 - 섬 문화축제 부활 및 해양문화 육성
문화예술 기반 조성	- 유희시설 재활용 창작공간 확충 및 전문예술인 유치 - 문화예술클러스터 유도 정책 개발 - 예술산업 및 특성화된 예술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 도서지역의 에코뮤지엄화 및 녹지 체계 조성 및 친환경 건축물 장려 - 다양한 세수 개발 및 문화예술 지원 강화
도민 참여 강화	-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문화정책 반영 제도 구축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생활예술 활성화
커뮤니티의 강화	- 일반 예술 및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 -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강화 - 국제문화예술교류기구 신설을 통한 교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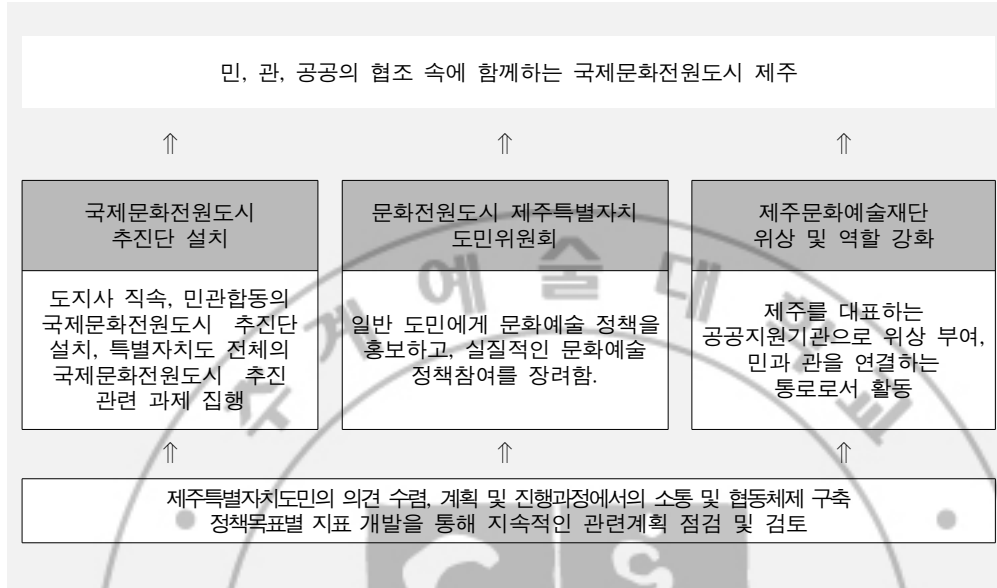
제주는 지형학적 특성상 도시발전의 방향설정을 자연과 환경을 상위가치로 하고 생산과 소비구조, 하부구조, 도시계획 등의 관행과 제도를 자연과 문화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배려하는 기술, 산업구조, 인프라 그리고 관리 방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도시의 사회경제구조 전반이 질적으로 변화된다. 제주 섬 중앙에 한라산이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그 생태적 구성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완결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해체되고 있는 이러한 생태환경은 이제 복원되어야 한다. 즉 제주 도심의 산지천 복원을 계기로, 구도심에 제주의 사라진 자연을 돌아오도록 하여 도시 내에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건축물들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타 지역의 중소도시와 같은 느낌을 주는 구도심을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의 자연환경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국제문화전원도시의 비전으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향유와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도시 이미지로 강화하여야 하겠다. 고유문화의 특징과 매력적인 도시정체성,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된 살기 좋고 활기차며 매력적인 국제도시, 국제관광지로서 다양한 인구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공간구성 등을 토대로 문화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즉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우선순위를 상위에 둘 때 독자적인 문화정책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걸맞은 목표가 수립되고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하위실행목표가 설정될 수 있겠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문화의 속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님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화도시로 전환을 통하여 도시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과 참여의식

을 고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및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표 52> 국제문화전원도시 기본계획 추진체계



※ 인천문화발전계획 재구성

국제문화전원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잘 만든 계획의 존재 여부만큼이나,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중요하다. 이에 <표 52>와 같은 추진 형태 및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진체를 형성해내는 것이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문화전원도시로 가는 핵심적이고, 실질적 요인이 될 것이다. 문화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정부서의 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자치도 전체의 전략적 과제로 삼을 수 있는 조직 정비를 건의한다. 일반도민에게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네트워크 및 오프라인 활동 등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 및 평가·환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문화예술 유관기관·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를 조직한다.

### 3. 문화정책의 이행에 따른 과제

#### 1) 문화행정조직의 체계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를 고민함에 있어 전제로 해야 할 원칙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조직체계 구성의 전제 : 제주지역에서 향후 발전 가능한 문화행정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기존이전의 행정체계만을 기준으로 문화행정체계를 구상하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속담의 교훈에 맞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 증대된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 속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보장을 위한 문화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직체계 : 천부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논의는 유네스코에서 시작된 논의이지만 문화현장까지 발표하고 나선 참여정부시대에서 문화권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향후 문화를 어떻게 정책화시키고 사회적 공공재로 가져가느냐에 매우 중차대한 지표가 된다. 특히 앞에 강조한 문화현장의 내용들을 제주지역 현실 속에 어떻게 반영하고 구현하느냐가 21세기 선진문화행정의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 통합행정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기구 및 시설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현재 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는 애초에 논의되던 단층화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군제 폐지에 근거한 기초단체의 통합은 애초에 행정계층구조의 간략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증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문화관련 기구 및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적·물적 통폐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팔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구조’ 필요 : 이미 널리 알려진 서구일반의 문화행정 원리인 팔길이의 원칙은 문

15) 박경훈,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문화행정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제주문화예술정책 연구집 제4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화행정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가장 공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특히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행정과 문화축매자, 향수자, 예술가들의 각각의 역할분담에 다름 아니다. 즉, 행정의 역할은 철저하게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권위주의시대의 지도감독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문화행정의 방향이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원칙 아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행정체계는 기존의 군제가 폐지되면서 광역도 아래 2개의 행정시로 편제되어 예산편성권과 인사권(6급 이상)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출범을 앞두고 정리된 각종 문화관련조례나 문화행정조직체계 등은 시급하게 단순 결합된 경우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의 취지를 더욱 살려서 광역 문화행정체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칭으로서 '문화청'이나 '문화예술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문화정책에 종사하는 이들은 실무를 통해 기능을 습득하는데 그쳐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활동을 키우기 위해 문화정책 인력의 전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문화행정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존인력을 재교육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전문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연수원, 각 시도 공무원연수원 등 문화관련 교육대상과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문화행정 담당자는 기술적 전문가를 뛰어넘어 좀 더 폭넓게 창의적 전문가로 바뀌어야 한다<sup>16)</sup>.

문화정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관련공무원도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행사와 공간전시 등도 전문성의 부재로 보고 전문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축적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회성의 한계성을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실은 문화정책

16) 이홍재, 앞책, pp. 122-124.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체 교육만으로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 하여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문화행정 공무원들도 순환근무제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은 갖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이룬다면 전문성과 관련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 3) 문화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은 국비, 시비, 군·구비, 민간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원조달에 대한 발상의 전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실성이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여 더욱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을 수립 하고 추진할 때에도 창조적 발상으로 기존의 유·무형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예술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창출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당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활용이나 관광지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를 할 때 준조세 개념인 입도세를 신설,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 공공 서비스의 혁신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정책과제의 실현 수단을 다각화해야 한다.

<표 53> 복권기금 세출 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예산액	비율(%)
총계	52,192,000	100.0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17,899,000	34.3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458,000	60.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835,000	5.4

<표 53>을 살펴보면 년 500억 정도의 복권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배당되는데, 여기서도 문화관련 예산 비율이 5.4%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 문화관련 예산을 15% 정도 올리면 문화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입도세 도입은 산업기반이 약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세계 제도이다. 이 입도세는 문화재정만이 아니라 관광재정과 함께 사용하여 문화와 관광에 투자하여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부분인데, 자원조달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꾸리찌바의 경우 시의 건물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었다. 즉, 오래된 가구 공장이 꾸리찌바 계획연구소로 바뀌고, 탄약창이 문화센터, 그리고 본드공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조성센터로 전화되었다. 또한 폐전차의 객차가 보행자전용광장이 위치한 '꽃의 거리'에서 쇼핑 나온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로 재활용되고, 사용기간이 지난 버스가 '취업로'라는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이동교실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듯 새로운 자원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문화재정 확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4) 문화창작 인프라의 확대

현재 제주도내에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sup>17)</sup>보다 시급한 것은 창작 인프라이다. 기존 건물(노후 건물) 및 유휴 공공 건물, 창고들을 활용하여 창작촌(창작 센터)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정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 및 창작사업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에는 인색하다고 본다. 이 창작촌은 철저히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다. 단체 사무실, 공연 연습실, 아틀리에, 의상 대여실, 무대 제작실, 의상 및 무대 보관소 등을 갖추어 경남 밀양의 밀양연극촌과 같은 전문창작촌으로 조성하여 창작활동의 메카로 육성하여야 하겠다. 이 창작촌에는 제주문화예술인들을 우선 입주하며 입주 시 저가에 분양하면 될 것이다.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17) 공연장, 전시실, 박물관 등



는 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창작생산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제주문화예술단체의 간접 재정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이 창작촌을 관광과 연계하는 공공문화 테마공원으로 발전시켜 개발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 5) 문화 광역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충

제주의 문화예술 시장은 타 광역권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작은 시장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유형을 강화하여 시장 개척의 목적인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어 문화예술단체의 시장 개척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번역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제주문화예술 창작품들을 번역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는 사업과 문화예술교류 기구를 구성하여 제주문화예술단체의 도외 및 국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겠다.

기존에 제주도에서 자매결연 한 국가와 도시 간 교류 사업에 제주문화예술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일본 오키나와 인도네시아 발리 등과 국제적인 문화벨트가 구성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한 국가나 지역에 머물지 말고 문화의 광역화를 통해 지역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전문적·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예술의 세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에 국제교류 전담 부서인 국제교류팀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 6) 문화예술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센터 및 여러 협력단체와의 연계를 가능토록 하는 총체적인 망으로 자원, 시설, 정보, 공간,

지식, 인적 관계이자 의사소통의 통로이다. 또한 지역은 중앙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독자성을 갖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고지원과 지자체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사업이나 '지방문화원 중심 실버문화학교 운영'과 같은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업 등으로 시야를 넓혀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또한 지역 내 기업이나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유도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인력 양성과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강사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상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세분화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제주다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대부분 문화예술행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이윤추구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으로 얻어진 효과가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보다 외부적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욕구를 알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한다.

## V. 결론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흐름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문화정책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 후 제주문화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민의 권리의 하나로 문화권이 자리하는지, 이러한 문화의 향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화거버넌스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문화정책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그 역할 등을 언급하고 여기서 특별자치도는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자치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제주문화의 현황평가, 지역 문화정책의 평가, 지역문화정책의 영향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제주지역 문화의 현황 평가는 문화수준의 평가와 문화행사의 평가 구성 되었는데, 이 문항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비율이 좀 더 높았다.

둘째, 지역 문화정책의 평가에서 앞으로 문화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겠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비교적 낮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수립 시에 도민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이 지적되었고,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도 중요하게 거론 되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의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는 바, 문화정책의 영향요인에서는 역시 도민,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 대응

성을 높이는 것이 문화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문화정책결정의 영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지사의 문화적 마인드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적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조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문화정책 변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실은 문화 비전의 정립이다. 모든 도시의 정책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에는 많은 장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문학, 전시, 공연, 민속문화 등 소위 문화예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안고 있다. 따라서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일정한 수준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와 더불어 문화발전의 장기 계획 즉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하여 실천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체 교육만으로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행정 공무원들의 순환근무제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이룬다면 전문성과 관련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민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에 대한 도민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렴성이 지적되었다는 사실은 당장의 문화예술행정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여론조사나 문화행정이나 정책사업의 수립과정에 관련 도민이나 전문가, 문화예술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주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수준 낮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도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며, 이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확립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 문화거버넌스 구축이다. 따라서 자치도는 문화행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추진되거나 전담해야 할 경우나 분야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법적, 행정적 지원만 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며 특히 재정적 지원의 경우도 필수경비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이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치게 행정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행정의 수준이 높아져야 문화도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상기와 같은 문제점과 대응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은 증진될 것이며, 문화가 바탕이 되는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부록(결과 분석표)

<표 54>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보통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높아짐	낮아짐		
<b>전</b>	<b>체 (139)</b>	<b>0.7</b>	<b>10.8</b>	<b>45.3</b>	<b>37.4</b>	<b>5.8</b>	<b>100.0</b>	<b>(2.63)</b>
<b>종</b>	<b>합</b>	<b>(11.5)</b>		<b>45.3</b>	<b>(43.2)</b>			
<b>성</b>	<b>별</b>							
남	자 (67)	0.0	9.0	52.2	34.3	4.5	100.0	(2.66)
여	자 (72)	1.4	12.5	38.9	40.3	6.9	100.0	(2.61)
<b>연</b>	<b>령</b>							
20대	이하 (29)	0.0	6.9	51.7	37.9	3.4	100.0	(2.62)
30대	(38)	0.0	7.9	34.2	52.6	5.3	100.0	(2.45)
40대	(39)	0.0	20.5	46.2	25.6	7.7	100.0	(2.79)
50대	(18)	5.6	11.1	27.8	50.0	5.6	100.0	(2.61)
60대	(15)	0.0	0.0	80.0	13.3	6.7	100.0	(2.73)
<b>학</b>	<b>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0.0	7.7	64.1	20.5	7.7	100.0	(2.72)
대학교 재학, 졸업	(69)	0.0	13.0	36.2	47.8	2.9	100.0	(2.59)
대학원 재학 이상	(31)	3.2	9.7	41.9	35.5	9.7	100.0	(2.61)
<b>직</b>	<b>업</b>							
농·수·축 산업	(10)	0.0	0.0	70.0	20.0	10.0	100.0	(2.60)
자영업	(13)	0.0	0.0	61.5	38.5	0.0	100.0	(2.62)
생산/기술직	(8)	0.0	0.0	50.0	50.0	0.0	100.0	(2.50)
사무/판매/서비스직	(24)	0.0	12.5	45.8	33.3	8.3	100.0	(2.63)
공무원	(5)	0.0	40.0	40.0	20.0	0.0	100.0	(3.20)
경영/전문직	(13)	7.7	23.1	30.8	30.8	7.7	100.0	(2.92)
전업주부	(4)	0.0	0.0	75.0	25.0	0.0	100.0	(2.75)
학생	(14)	0.0	0.0	57.1	35.7	7.1	100.0	(2.50)
무직	(5)	0.0	0.0	60.0	20.0	20.0	100.0	(2.40)
예술종사자	(23)	0.0	21.7	26.1	47.8	4.3	100.0	(2.65)
기타	(20)	0.0	10.0	35.0	50.0	5.0	100.0	(2.50)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 보면 남자응답자가 2.66점, 여자응답자 2.61점으로 전반적인 문화수준에 대해 모두 다 낮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40대가 2.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대 2.73점, 20대 2.62점, 50대 2.61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문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가 2.72점, 대학원 재학 이상 2.61점, 대학교 재학, 졸업 2.59점으로 전반적으로 문화수준이 낮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도 공무원 3.20점, 경영/전문직 2.92점, 전업주부 2.75점, 예술종사자 2.65점 순으로 전반적으로 문화수준이 낮다고 생각 함.

<표 55> 제주지역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b>전</b>	<b>체 (139)</b>	<b>0.0</b>	<b>8.6</b>	<b>61.9</b>	<b>25.9</b>	<b>3.6</b>	<b>100.0</b>	<b>(2.76)</b>
<b>종</b>	<b>합</b>	<b>(8.6)</b>		<b>61.9</b>	<b>(29.5)</b>			
<b>성</b>	<b>별</b>	<b>22.6</b>			<b>77.4</b>			
남	자 (67)	0.0	6.0	67.2	23.9	3.0	100.0	(2.76)
여	자 (72)	0.0	11.1	56.9	27.8	4.2	100.0	(2.75)
<b>연</b>	<b>령</b>							
20대	이하 (29)	0.0	6.9	69.0	20.7	3.4	100.0	(2.79)
30대	(38)	0.0	7.9	55.3	31.6	5.3	100.0	(2.66)
40대	(39)	0.0	12.8	56.4	25.6	5.1	100.0	(2.77)
50대	(18)	0.0	11.1	55.6	33.3	0.0	100.0	(2.78)
60대	(15)	0.0	0.0	86.7	13.3	0.0	100.0	(2.87)
<b>학</b>	<b>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0.0	7.7	69.2	20.5	2.6	100.0	(2.82)
대학교 재학, 졸업	(69)	0.0	7.2	60.9	27.5	4.3	100.0	(2.71)
대학원 재학 이상	(31)	0.0	12.9	54.8	29.0	3.2	100.0	(2.77)
<b>직</b>	<b>업</b>							
농·수·축산업	(10)	0.0	0.0	90.0	10.0	0.0	100.0	(2.90)
자영업	(13)	0.0	7.7	61.5	30.8	0.0	100.0	(2.77)
생산/기술직	(8)	0.0	0.0	100.0	0.0	0.0	100.0	(3.00)
사무/판매/서비스직	(24)	0.0	16.7	62.5	12.5	8.3	100.0	(2.88)
공무원	(5)	0.0	0.0	60.0	40.0	0.0	100.0	(2.60)
경영/전문직	(13)	0.0	30.8	38.5	30.8	0.0	100.0	(3.00)
전업주부	(4)	0.0	0.0	75.0	25.0	0.0	100.0	(2.75)
학생	(14)	0.0	0.0	71.4	28.6	0.0	100.0	(2.71)
무직	(5)	0.0	0.0	60.0	40.0	0.0	100.0	(2.60)
예술종사자	(23)	0.0	13.0	47.8	34.8	4.3	100.0	(2.70)
기타	(20)	0.0	0.0	55.0	35.0	10.0	100.0	(2.4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응답자 2.76점, 여자응답자 2.75점으로 질적 수준에 대해 모두 다 낮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60대가 2.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 2.79점, 50대 2.78점, 40대 2.77점, 30대 2.66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82점, 대학원 재학 이상 2.77점, 대학교 재학, 졸업 2.71점으로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생산/기술직 3.00점, 농수축산업 2.90점, 사무/판매/서비스직 2.88, 자영업 2.77점, 전업주부 2.75점, 학생 2.71점 순으로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 함.

<표 56>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보통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높아짐	낮아짐		
<b>전</b>	<b>체 (139)</b>	<b>0.0</b>	<b>11.5</b>	<b>35.3</b>	<b>45.3</b>	<b>7.9</b>	<b>100.0</b>	<b>(2.50)</b>
<b>종</b>	<b>합</b>	<b>(11.5)</b>		<b>35.3</b>	<b>(53.2)</b>			
<b>평</b>	<b>가</b>	<b>17.8</b>			<b>82.2</b>			
<b>성</b>	<b>별</b>							
남	자 (67)	0.0	7.5	32.8	56.7	3.0	100.0	(2.45)
여	자 (72)	0.0	15.3	37.5	34.7	12.5	100.0	(2.56)
<b>연</b>	<b>령</b>							
20대	이하 (29)	0.0	0.0	31.0	62.1	6.9	100.0	(2.24)
30대	(38)	0.0	15.8	28.9	42.1	13.2	100.0	(2.47)
40대	(39)	0.0	17.9	35.9	38.5	7.7	100.0	(2.64)
50대	(18)	0.0	11.1	33.3	50.0	5.6	100.0	(2.50)
60대	(15)	0.0	6.7	60.0	33.3	0.0	100.0	(2.73)
<b>학</b>	<b>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0.0	5.1	51.3	38.5	5.1	100.0	(2.56)
대학교 재학, 졸업	(69)	0.0	14.5	24.6	52.2	8.7	100.0	(2.45)
대학원 재학 이상	(31)	0.0	12.9	38.7	38.7	9.7	100.0	(2.55)
<b>직</b>	<b>업</b>							
농·수·축 산업	(10)	0.0	10.0	50.0	40.0	0.0	100.0	(2.70)
자영업	(13)	0.0	7.7	30.8	46.2	15.4	100.0	(2.31)
생산/기술직	(8)	0.0	0.0	37.5	62.5	0.0	100.0	(2.38)
사무/판매/서비스직	(24)	0.0	8.3	41.7	33.3	16.7	100.0	(2.42)
공무원	(5)	0.0	60.0	0.0	20.0	20.0	100.0	(3.00)
경영/전문직	(13)	0.0	0.0	53.8	30.8	15.4	100.0	(2.38)
전업주부	(4)	0.0	0.0	50.0	50.0	0.0	100.0	(2.50)
학생	(14)	0.0	14.3	35.7	50.0	0.0	100.0	(2.64)
무직	(5)	0.0	0.0	60.0	40.0	0.0	100.0	(2.60)
예술종사자	(23)	0.0	8.7	26.1	60.9	4.3	100.0	(2.39)
기타	(20)	0.0	25.0	20.0	50.0	5.0	100.0	(2.6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응답자 2.45점, 여자응답자 2.56점으로 모두 다 낮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도 60대가 2.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2.64점, 50대 2.50점, 30대 2.47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관심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가 2.56점, 대학원 재학 이상 2.55점, 대학교 재학, 졸업 2.45점으로 전반적으로 관심수준이 낮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공무원 3.00점, 농수축산업 2.70점, 기타 2.65점, 학생 2.64점 순으로 관심수준이 낮다고 생각 함.



<표 57>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b>전 종 합 평 가</b>	<b>(139)</b>	<b>0.7</b>	<b>5.8</b>	<b>26.6</b>	<b>46.8</b>	<b>20.1</b>	<b>100.0</b>	<b>(2.20)</b>
		<b>(6.5)</b>		<b>26.6</b>	<b>(66.9)</b>			
		<b>8.8</b>			<b>91.2</b>			
<b>성 별</b>								
남 자	(67)	0.0	6.0	14.9	50.7	28.4	100.0	(1.99)
여 자	(72)	1.4	5.6	37.5	43.1	12.5	100.0	(2.40)
<b>연 령</b>								
20대 이하	(29)	0.0	3.4	24.1	48.3	24.1	100.0	(2.07)
30대	(38)	2.6	2.6	36.8	50.0	7.9	100.0	(2.42)
40대	(39)	0.0	12.8	30.8	33.3	23.1	100.0	(2.33)
50대	(18)	0.0	0.0	22.2	61.1	16.7	100.0	(2.06)
60대	(15)	0.0	6.7	0.0	53.3	40.0	100.0	(1.73)
<b>학 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0.0	7.7	25.6	43.6	23.1	100.0	(2.18)
대학교 재학, 졸업	(69)	1.4	4.3	30.4	47.8	15.9	100.0	(2.28)
대학원 재학 이상	(31)	0.0	6.5	19.4	48.4	25.8	100.0	(2.06)
<b>직 업</b>								
농·수·축 산업	(10)	0.0	10.0	10.0	30.0	50.0	100.0	(1.80)
자영업	(13)	7.7	0.0	46.2	46.2	0.0	100.0	(2.69)
생산/기술직	(8)	0.0	0.0	12.5	50.0	37.5	100.0	(1.75)
사무/판매/서비스직	(24)	0.0	4.2	45.8	41.7	8.3	100.0	(2.46)
공무원	(5)	0.0	0.0	40.0	60.0	0.0	100.0	(2.40)
경영/전문직	(13)	0.0	7.7	30.8	30.8	30.8	100.0	(2.15)
전업주부	(4)	0.0	25.0	0.0	50.0	25.0	100.0	(2.25)
학생	(14)	0.0	0.0	14.3	71.4	14.3	100.0	(2.00)
무직	(5)	0.0	0.0	0.0	60.0	40.0	100.0	(1.60)
예술종사자	(23)	0.0	13.0	26.1	43.5	17.4	100.0	(2.35)
기타	(20)	0.0	5.0	20.0	50.0	25.0	100.0	(2.0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응답자가 1.99점으로 남자응답자 2.40점보다 비중에 대해 낮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30대가 2.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2.33점, 20대 이하 2.07점, 50대 2.06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졸업 2.28점, 고졸 이하 2.18점, 대학원 재학 이상 2.06점으로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자영업 2.69점, 사무/판매/서비스직 2.46점, 공무원 2.40점, 예술종사자 2.35점, 전업주부 2.35점, 경영/전문직 2.15점 순으로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생각 함.

<표 58>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b>전체</b>	<b>(139)</b>	<b>4.3</b>	<b>18.0</b>	<b>38.1</b>	<b>33.8</b>	<b>5.8</b>	<b>100.0</b>	<b>(2.81)</b>
<b>종합평가</b>		<b>(22.3)</b>		<b>38.1</b>	<b>(39.6)</b>			
		<b>36.0</b>			<b>64.0</b>			
<b>성별</b>								
남자	(67)	3.0	14.9	31.3	43.3	7.5	100.0	(2.63)
여자	(72)	5.6	20.8	44.4	25.0	4.2	100.0	(2.99)
<b>연령</b>								
20대 이하	(29)	0.0	24.1	27.6	44.8	3.4	100.0	(2.72)
30대	(38)	5.3	18.4	47.4	26.3	2.6	100.0	(2.97)
40대	(39)	10.3	20.5	35.9	23.1	10.3	100.0	(2.97)
50대	(18)	0.0	5.6	55.6	27.8	11.1	100.0	(2.56)
60대	(15)	0.0	13.3	20.0	66.7	0.0	100.0	(2.47)
<b>학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2.6	12.8	38.5	41.0	5.1	100.0	(2.67)
대학교 재학, 졸업	(69)	4.3	24.6	36.2	30.4	4.3	100.0	(2.94)
대학원 재학 이상	(31)	6.5	9.7	41.9	32.3	9.7	100.0	(2.71)
<b>직업</b>								
농·수·축산업	(10)	0.0	10.0	10.0	70.0	10.0	100.0	(2.20)
자영업	(13)	7.7	7.7	61.5	23.1	0.0	100.0	(3.00)
생산/기술직	(8)	0.0	0.0	50.0	50.0	0.0	100.0	(2.50)
사무/판매/서비스직	(24)	4.2	33.3	45.8	12.5	4.2	100.0	(3.21)
공무원	(5)	0.0	0.0	60.0	40.0	0.0	100.0	(2.60)
경영전문직	(13)	0.0	15.4	46.2	15.4	23.1	100.0	(2.54)
전업주부	(4)	0.0	0.0	50.0	50.0	0.0	100.0	(2.50)
학생	(14)	0.0	14.3	21.4	57.1	7.1	100.0	(2.43)
무직	(5)	0.0	20.0	40.0	40.0	0.0	100.0	(2.80)
예술종사자	(23)	4.3	17.4	30.4	39.1	8.7	100.0	(2.70)
기타	(20)	15.0	30.0	30.0	25.0	0.0	100.0	(3.3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응답자가 2.63점으로 남자응답자 2.99점보다 비중에 대해 낮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 2.72점, 50대 2.56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졸업 2.94점, 대학원 재학 이상 2.71점, 고졸 이하 2.67점으로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기타 3.35점, 사무/판매/서비스직 3.21점, 자영업 3.00점, 무직 2.80점, 예술종사자 2.70점, 공무원 2.60점 순으로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생각 함.

<표 59>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보통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b>전</b>	<b>체 (139)</b>	<b>0.0</b>	<b>6.5</b>	<b>20.1</b>	<b>44.6</b>	<b>28.8</b>	<b>100.0</b>	<b>(2.04)</b>
<b>종 합 평 가</b>		<b>(6.5)</b>	<b>8.1</b>	<b>20.1</b>	<b>(73.4)</b>	<b>91.9</b>		
<b>성 별</b>								
남 자	(67)	0.0	6.0	16.4	40.3	37.3	100.0	(1.91)
여 자	(72)	0.0	6.9	23.6	48.6	20.8	100.0	(2.17)
<b>연 령</b>								
20대 이하	(29)	0.0	6.9	6.9	41.4	44.8	100.0	(1.76)
30대	(38)	0.0	7.9	31.6	42.1	18.4	100.0	(2.29)
40대	(39)	0.0	5.1	23.1	48.7	23.1	100.0	(2.10)
50대	(18)	0.0	5.6	22.2	38.9	33.3	100.0	(2.00)
60대	(15)	0.0	6.7	6.7	53.3	33.3	100.0	(1.87)
<b>학 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0.0	7.7	25.6	35.9	30.8	100.0	(2.10)
대학교 재학, 졸업	(69)	0.0	7.2	17.4	50.7	24.6	100.0	(2.07)
대학원 재학 이상	(31)	0.0	3.2	19.4	41.9	35.5	100.0	(1.90)
<b>직 업</b>								
농·수·축 산업	(10)	0.0	10.0	0.0	40.0	50.0	100.0	(1.70)
자영업	(13)	0.0	15.4	30.8	46.2	7.7	100.0	(2.54)
생산/기술직	(8)	0.0	0.0	37.5	50.0	12.5	100.0	(2.25)
사무/판매/서비스직	(24)	0.0	8.3	29.2	41.7	20.8	100.0	(2.25)
공무원	(5)	0.0	20.0	0.0	80.0	0.0	100.0	(2.40)
경영/전문직	(13)	0.0	0.0	23.1	61.5	15.4	100.0	(2.08)
전업주부	(4)	0.0	0.0	25.0	25.0	50.0	100.0	(1.75)
학생	(14)	0.0	0.0	0.0	42.9	57.1	100.0	(1.43)
무직	(5)	0.0	0.0	0.0	100.0	0.0	100.0	(2.00)
예술종사자	(23)	0.0	8.7	21.7	30.4	39.1	100.0	(2.00)
기타	(20)	0.0	5.0	25.0	35.0	35.0	100.0	(2.00)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응답자가 1.91점으로 여자응답자 2.17점보다 공직자들의 관심이 낮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30대가 2.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2.10점, 50대 2.00점, 60대 1.87점 20대 이하 1.76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2.10점, 대학교 재학, 졸업 2.07점, 대학원 재학 이상 1.90점으로 전반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 대해 관심이 낮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자영업 2.54점, 공무원 2.40점, 사무/판매/서비스직 2.25점, 생산/기술직 2.25점, 경영/전문직 2.08점, 기타와 예술종사자 각 2.00점, 순으로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의 관심이 낮다고 생각 함.

<표 60> 정책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중요	비교적 중요	보통	별로 중요	매우 중요	%	평균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b>전 총 합 평 가</b>	<b>(139)</b>	<b>11.5</b>	<b>33.1</b>	<b>32.4</b>	<b>20.9</b>	<b>2.2</b>	<b>100.0</b>	<b>(3.31)</b>
		<b>(44.6)</b>		<b>32.4</b>	<b>(23.0)</b>			
		<b>66.0</b>			<b>34.0</b>			
<b>성 별</b>								
남 자	(67)	10.4	31.3	31.3	26.9	0.0	100.0	(3.25)
여 자	(72)	12.5	34.7	33.3	15.3	4.2	100.0	(3.36)
<b>연 령</b>								
20대 이하	(29)	6.9	34.5	13.8	41.4	3.4	100.0	(3.00)
30대	(38)	2.6	28.9	50.0	13.2	5.3	100.0	(3.11)
40대	(39)	23.1	25.6	35.9	15.4	0.0	100.0	(3.56)
50대	(18)	16.7	38.9	22.2	22.2	0.0	100.0	(3.50)
60대 이상	(15)	6.7	53.3	26.7	13.3	0.0	100.0	(3.53)
<b>학 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2.6	48.7	28.2	15.4	5.1	100.0	(3.28)
대학교 재학, 졸업	(69)	10.1	21.7	37.7	29.0	1.4	100.0	(3.10)
대학원 재학 이상	(31)	25.8	38.7	25.8	9.7	0.0	100.0	(3.81)
<b>직 업</b>								
농·수·축 산업	(10)	0.0	50.0	40.0	10.0	0.0	100.0	(3.40)
자영업	(13)	0.0	46.2	46.2	7.7	0.0	100.0	(3.38)
생산/기술직	(8)	25.0	37.5	12.5	25.0	0.0	100.0	(3.63)
사무/판매/서비스직	(24)	0.0	25.0	45.8	16.7	12.5	100.0	(2.83)
공무원	(5)	0.0	80.0	0.0	20.0	0.0	100.0	(3.60)
경영/전문직	(13)	15.4	15.4	30.8	38.5	0.0	100.0	(3.08)
전업주부	(4)	0.0	50.0	50.0	0.0	0.0	100.0	(3.50)
학생	(14)	0.0	28.6	14.3	57.1	0.0	100.0	(2.71)
무직	(5)	0.0	60.0	20.0	20.0	0.0	100.0	(3.40)
예술종사자	(23)	13.0	26.1	43.5	17.4	0.0	100.0	(3.35)
기 타	(20)	45.0	25.0	20.0	10.0	0.0	100.0	(4.0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 3.36점, 여자 3.25점으로 시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40대가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대 3.53점, 50대 3.50점, 30대 3.11점, 20대 이하 3.00점 순으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시민 의견수렴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함.
  - 학력별로도 대학원 재학 이상 3.81점, 고졸 이하가 3.28점, 대학교 재학, 졸업 3.10점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시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기타 4.05점, 생산/기술직 3.63점, 공무원 3.60점, 전업주부 3.50점, 무직 3.40점, 농수축산업 3.40점, 자영업 3.38점순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시민 의견수렴이 중요성하다고 생각 함.

<표 6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잘함	비교적 잘함	보통	비교적 못함	매우 못함	%	평균
		잘하고 있음		못하고 있음				
<b>전 종 합 평 가</b>	<b>체 (139)</b>	<b>3.6</b>	<b>31.7</b>	<b>37.4</b>	<b>24.5</b>	<b>2.9</b>	<b>100.0</b>	<b>(3.09)</b>
		<b>(35.3)</b>		<b>37.4</b>	<b>(27.3)</b>			
		<b>56.3</b>			<b>43.7</b>			
<b>성 별</b>								
남 자	(67)	3.0	40.3	23.9	28.4	4.5	100.0	(3.09)
여 자	(72)	4.2	23.6	50.0	20.8	1.4	100.0	(3.08)
<b>연 령</b>								
20대 이 하	(29)	0.0	27.6	37.9	34.5	0.0	100.0	(2.93)
30 대	(38)	0.0	15.8	55.3	23.7	5.3	100.0	(2.82)
40 대	(39)	7.7	38.5	30.8	17.9	5.1	100.0	(3.26)
50 대	(18)	11.1	38.9	27.8	22.2	0.0	100.0	(3.39)
60 대	(15)	0.0	53.3	20.0	26.7	0.0	100.0	(3.27)
<b>학 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0.0	38.5	33.3	25.6	2.6	100.0	(3.08)
대학교 재학, 졸업	(69)	1.4	29.0	39.1	26.1	4.3	100.0	(2.97)
대학원 재학 이상	(31)	12.9	29.0	38.7	19.4	0.0	100.0	(3.35)
<b>직 업</b>								
농·수·축 산 업	(10)	0.0	30.0	20.0	50.0	0.0	100.0	(2.80)
자 영 업	(13)	0.0	0.0	61.5	30.8	7.7	100.0	(2.54)
생 산 / 기 술 직	(8)	0.0	37.5	37.5	12.5	12.5	100.0	(3.00)
사 무 / 판 매 / 서 비 스 직	(24)	0.0	16.7	62.5	16.7	4.2	100.0	(2.92)
공 무 원	(5)	40.0	40.0	20.0	0.0	0.0	100.0	(4.20)
경 영 / 전 문 직	(13)	7.7	23.1	46.2	23.1	0.0	100.0	(3.15)
전 업 주 부	(4)	0.0	75.0	25.0	0.0	0.0	100.0	(3.75)
학 생	(14)	0.0	71.4	7.1	21.4	0.0	100.0	(3.50)
무 직	(5)	0.0	80.0	20.0	0.0	0.0	100.0	(3.80)
예 술 종 사 자	(23)	0.0	21.7	43.5	30.4	4.3	100.0	(2.83)
기 타	(20)	10.0	35.0	20.0	35.0	0.0	100.0	(3.20)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 3.09점, 여자 3.08점으로 감독과 관리를 모두 다 잘한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50대가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대 3.27점, 40대 3.26점, 20대 2.93점 순으로 나타나 감독과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3.35점, 고졸 이하가 3.08점, 대학교 재학, 졸업 2.97점으로 감독과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공무원 4.20점, 무직 3.80점, 전업주부 3.75점, 학생 3.50점, 기타 3.20점, 경영/전문직 3.15점, 생산/기술직 3.00점, 사무/판매/사무직 2.92점, 예술종사자 2.83점 순으로 감독과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 함.

<표 62>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	평균
		높아짐			낮아짐			
<b>전 종 합 평 가</b>	<b>(139)</b>	<b>8.6</b>	<b>41.7</b>	<b>31.7</b>	<b>15.1</b>	<b>2.9</b>	<b>100.0</b>	<b>(3.38)</b>
		<b>(50.4)</b>		<b>31.7</b>	<b>(18.0)</b>			
		<b>73.7</b>			<b>26.3</b>			
<b>성 별</b>								
남 자	(67)	11.9	50.7	23.9	9.0	4.5	100.0	(3.57)
여 자	(72)	5.6	33.3	38.9	20.8	1.4	100.0	(3.21)
<b>연 령</b>								
20 대 이 하	(29)	20.7	41.4	27.6	10.3	0.0	100.0	(3.72)
30 대	(38)	2.6	28.9	44.7	23.7	0.0	100.0	(3.11)
40 대	(39)	7.7	48.7	25.6	12.8	5.1	100.0	(3.41)
50 대	(18)	5.6	27.8	38.9	22.2	5.6	100.0	(3.06)
60 대	(15)	6.7	73.3	13.3	0.0	6.7	100.0	(3.73)
<b>학 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2.6	41.0	33.3	17.9	5.1	100.0	(3.18)
대학교 재학, 졸업	(69)	8.7	37.7	36.2	17.4	0.0	100.0	(3.38)
대학원 재학 이상	(31)	16.1	51.6	19.4	6.5	6.5	100.0	(3.65)
<b>직 업</b>								
농·수·축 산업	(10)	10.0	60.0	10.0	10.0	10.0	100.0	(3.50)
자 영 업	(13)	0.0	38.5	23.1	38.5	0.0	100.0	(3.00)
생 산 / 기 술 직	(8)	0.0	75.0	12.5	12.5	0.0	100.0	(3.63)
사무/판매/서비스직	(24)	4.2	20.8	54.2	20.8	0.0	100.0	(3.08)
공 무 원	(5)	0.0	60.0	40.0	0.0	0.0	100.0	(3.60)
경 영 / 전 문 직	(13)	7.7	46.2	23.1	15.4	7.7	100.0	(3.31)
전 업 주 부	(4)	0.0	50.0	50.0	0.0	0.0	100.0	(3.50)
학 생	(14)	14.3	42.9	35.7	0.0	7.1	100.0	(3.57)
무 직	(5)	20.0	40.0	40.0	0.0	0.0	100.0	(3.80)
예 술 종 사 자	(23)	17.4	30.4	30.4	17.4	4.3	100.0	(3.39)
기 타	(20)	10.0	50.0	25.0	15.0	0.0	100.0	(3.5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 3.57점, 여자 3.21점으로 모두 다 높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60대가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3.72점, 40대 3.41점, 30대 3.11점 순으로 나타나 영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학력별로도 대학원 재학 이상 3.65점, 대학교 재학, 졸업 3.38점, 고졸 이하가 3.18점으로 영향이 높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무직 3.80점, 생산/기술직 3.63점, 공무원 3.60점, 학생 3.57점, 기타 3.55점, 농수축 산업 3.50점, 전업주부 3.50점, 예술종사자 3.39점 순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다고 생각 함.

<표 63> 경쟁력 있는 예술 분야 선택 후 집중 육성(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비교적	보통	별로	전혀	%	평균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b>전</b>	<b>체 (139)</b>	<b>33.1</b>	<b>32.4</b>	<b>20.1</b>	<b>12.9</b>	<b>1.4</b>	<b>100.0</b>	<b>(3.83)</b>
<b>종</b>	<b>합</b>	<b>(65.5)</b>		<b>20.1</b>	<b>(14.4)</b>			
	<b>평</b>	<b>82.0</b>			<b>18.0</b>			
<b>성</b>	<b>별</b>							
남	자 (67)	40.3	23.9	16.4	19.4	0.0	100.0	(3.85)
여	자 (72)	26.4	40.3	23.6	6.9	2.8	100.0	(3.81)
<b>연</b>	<b>령</b>							
20대	이하 (29)	34.5	20.7	24.1	20.7	0.0	100.0	(3.69)
30대	대 (38)	21.1	39.5	28.9	7.9	2.6	100.0	(3.68)
40대	대 (39)	33.3	48.7	7.7	10.3	0.0	100.0	(4.05)
50대	대 (18)	33.3	16.7	27.8	16.7	5.6	100.0	(3.56)
60대	대 (15)	60.0	13.3	13.3	13.3	0.0	100.0	(4.20)
<b>학</b>	<b>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35.9	20.5	28.2	15.4	0.0	100.0	(3.77)
대학교 재학, 졸업	(69)	30.4	34.8	20.3	13.0	1.4	100.0	(3.80)
대학원 재학 이상	(31)	35.5	41.9	9.7	9.7	3.2	100.0	(3.97)
<b>직</b>	<b>업</b>							
농·수·축 산업	(10)	60.0	20.0	0.0	20.0	0.0	100.0	(4.20)
자영업	(13)	30.8	38.5	23.1	7.7	0.0	100.0	(3.92)
생산/기술직	(8)	62.5	12.5	12.5	12.5	0.0	100.0	(4.25)
사무/판매/서비스직	(24)	20.8	29.2	37.5	12.5	0.0	100.0	(3.58)
공무원	(5)	40.0	40.0	20.0	0.0	0.0	100.0	(4.20)
경영/전문직	(13)	23.1	46.2	15.4	7.7	7.7	100.0	(3.69)
전업주부	(4)	25.0	25.0	50.0	0.0	0.0	100.0	(3.75)
학생	(14)	28.6	35.7	14.3	21.4	0.0	100.0	(3.71)
무	(5)	40.0	20.0	40.0	0.0	0.0	100.0	(4.00)
예술종사자	(23)	21.7	39.1	21.7	17.4	0.0	100.0	(3.65)
기타	(20)	45.0	30.0	5.0	15.0	5.0	100.0	(3.95)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가 3.85점, 여자 3.81점으로 모두 다 집중 육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60대가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4.05점, 20대 3.69점, 30대 3.68점 순으로 나타나 집중 육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3.97점, 대학교 재학, 졸업 3.80점, 고졸 이하가 3.77점으로 집중 육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함.
  - 직업별로는 생산/기술직 4.25점, 농수축산업과 공무원이 각 4.20점, 무직 4.00점, 기타 3.95점, 자영업 3.92점 순으로 집중 육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함.

<표 64> 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평가 철저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정책 수립시 문화 예술인 참여	시민의 견 적극 반영	선진 도시 정책 도입	기타	%	
<b>전</b>	<b>체</b>	<b>(139)</b>	<b>12.9</b>	<b>38.1</b>	<b>28.1</b>	<b>15.8</b>	<b>2.2</b>	<b>2.9</b>	<b>100.0</b>
<b>성</b>	<b>별</b>								
남	자	(67)	10.4	40.3	35.8	9.0	1.5	3.0	100.0
여	자	(72)	15.3	36.1	20.8	22.2	2.8	2.8	100.0
<b>연</b>	<b>령</b>								
20대	이하	(29)	6.9	55.2	13.8	24.1	0.0	0.0	100.0
30대	대	(38)	13.2	34.2	28.9	18.4	5.3	0.0	100.0
40대	대	(39)	20.5	33.3	30.8	7.7	0.0	7.7	100.0
50대	대	(18)	5.6	33.3	33.3	16.7	5.6	5.6	100.0
60대	대	(15)	13.3	33.3	40.0	13.3	0.0	0.0	100.0
<b>학</b>	<b>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이하	(39)	7.7	33.3	35.9	15.4	2.6	5.1	100.0
대학교 재학, 졸업	재학, 졸업	(69)	13.0	37.7	26.1	21.7	1.4	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이상	(31)	19.4	45.2	22.6	3.2	3.2	6.5	100.0
<b>직</b>	<b>업</b>								
농·수·축 산업	농·수·축 산업	(10)	20.0	30.0	40.0	0.0	0.0	10.0	100.0
자영업	자영업	(13)	0.0	15.4	38.5	38.5	0.0	7.7	100.0
생산/기술직	생산/기술직	(8)	0.0	50.0	50.0	0.0	0.0	0.0	100.0
사무/판매/서비스직	사무/판매/서비스직	(24)	4.2	41.7	29.2	16.7	4.2	4.2	100.0
공무원	공무원	(5)	20.0	20.0	60.0	0.0	0.0	0.0	100.0
경영/전문직	경영/전문직	(13)	23.1	46.2	7.7	15.4	7.7	0.0	100.0
전업주부	전업주부	(4)	25.0	50.0	25.0	0.0	0.0	0.0	100.0
학생	학생	(14)	14.3	35.7	21.4	28.6	0.0	0.0	100.0
무직	무직	(5)	20.0	60.0	20.0	0.0	0.0	0.0	100.0
예술종사자	예술종사자	(23)	4.3	60.9	17.4	8.7	4.3	4.3	100.0
기타	기타	(20)	30.0	15.0	30.0	25.0	0.0	0.0	100.0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성별로 보면 남자응답자와 여자응답자 모두 다 '담당자 전문성 강화'의 의견이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담당자전문성강화'의 의견이 60대는 '정책수립 시 문화예술인참여가 50대는 '담당자전문성강화', '정책수립시문화예술인참여'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졸업과 대학원 재학 이상은 '담당자전문성강화'의 의견이 고졸 이하는 '정책수립시문화예술인참여'의 의견이 높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 생산/기술직, 사무/판매/서비스직, 경영/전문직, 전업주부, 학생, 무직, 예술종사자는 '담당자전문성강화'가 농수축산업, 자영업, 공무원, 기타는 '정책수립시문화예술인참여'가 자영업은 '정책수립시문화예술인참여'와 '시민의견적극반영'이 생산/기술직은 '담당자전문성강화', '정책수립시문화예술인참여'가 각각 높음.



<표 6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응답자 특성별)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비교적	보통	별로	전혀	%	평균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b>0.7</b>	<b>13.7</b>	<b>33.8</b>	<b>45.3</b>	<b>6.5</b>	<b>100.0</b>	<b>(2.57)</b>
총	합	<b>(14.4)</b>		<b>33.8</b>	<b>(51.8)</b>			
	평	<b>21.7</b>			<b>78.3</b>			
	가							
<b>성</b>	<b>별</b>							
남	자	(67)	0.0	10.4	28.4	52.2	9.0	100.0 (2.40)
여	자	(72)	1.4	16.7	38.9	38.9	4.2	100.0 (2.72)
<b>연</b>	<b>령</b>							
20대	이하	(29)	0.0	13.8	20.7	62.1	3.4	100.0 (2.45)
30대	대	(38)	2.6	13.2	50.0	28.9	5.3	100.0 (2.79)
40대	대	(39)	0.0	10.3	35.9	43.6	10.3	100.0 (2.46)
50대	대	(18)	0.0	27.8	27.8	38.9	5.6	100.0 (2.78)
60대	대	(15)	0.0	6.7	20.0	66.7	6.7	100.0 (2.27)
<b>학</b>	<b>력</b>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이하	(39)	0.0	15.4	30.8	46.2	7.7	100.0 (2.54)
대학교 재학, 졸업	재학, 졸업	(69)	1.4	14.5	36.2	43.5	4.3	100.0 (2.65)
대학원 재학 이상	재학 이상	(31)	0.0	9.7	32.3	48.4	9.7	100.0 (2.42)
<b>직</b>	<b>업</b>							
농·수·축산업	업	(10)	0.0	0.0	20.0	70.0	10.0	100.0 (2.10)
자영업	업	(13)	7.7	7.7	46.2	38.5	0.0	100.0 (2.85)
생산/기술직	직	(8)	0.0	12.5	62.5	25.0	0.0	100.0 (2.88)
사무/판매/서비스직	직	(24)	0.0	20.8	37.5	33.3	8.3	100.0 (2.71)
공무원	원	(5)	0.0	40.0	0.0	60.0	0.0	100.0 (2.80)
경영/전문직	직	(13)	0.0	23.1	23.1	46.2	7.7	100.0 (2.62)
전업주부	부	(4)	0.0	25.0	25.0	50.0	0.0	100.0 (2.75)
학생	생	(14)	0.0	0.0	21.4	64.3	14.3	100.0 (2.07)
무직	직	(5)	0.0	20.0	20.0	60.0	0.0	100.0 (2.60)
예술종사자	자	(23)	0.0	8.7	30.4	47.8	13.0	100.0 (2.35)
기타	타	(20)	0.0	15.0	50.0	35.0	0.0	100.0 (2.80)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보면 성, 연령, 학력별,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응답자가 2.72점, 남자응답자 2.40점으로 모두 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 함.
  - 연령별로는 30대가 2.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 2.78점, 40대 2.46점, 20대 2.45점 순으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 함.
  -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졸업 2.65점, 고졸 이하가 2.54점, 대학원 재학 이상 2.42점으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 함.
  - 직업별로는 생산/기술직 2.88점, 자영업 2.85점, 공무원과 기타 각 2.80점, 전업주부 2.75점, 사무/판매/서비스직 2.71점, 경영/전문직 2.62점으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 함.

## 「특별자치도로서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의 문화예술 수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욱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각 질문항목에 대하여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석사논문 작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09. 10.

추계예술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고희송

질문항목에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시거나, 물음에 따라 빈칸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졸업 ③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① 농·수·축산업 ② 자영업 ③ 생산/기술직 ④ 사무/판매/서비스직  
⑤ 공무원 ⑥ 경영/전문직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예술종사자 ⑪ 기타(\_\_\_\_\_)

- 질문1.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 질문2. 제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 질문3.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 질문4.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내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 질문5.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 질문6.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 질문7. 문화예술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다른 정책분야와 비교 한다면?  
 ① 매우 중요 ② 비교적 더 중요 ③ 보통 ④ 별로 중요 ⑤ 매우 별로 중요
- 질문8.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감독과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함 ② 비교적 잘함 ③ 보통 ④ 별로 못함 ⑤ 매우 못함
- 질문9.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분야에 지방정부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비교적 높음 ③ 보통 ④ 비교적 낮음 ⑤ 매우 낮음

질문 10.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중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 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한다.  
② 문화예술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인다.  
③ 문화예술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 시킨다.  
④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⑤ 발전된 다른 도시들의 정책을 도입한다.  
⑥ 기타( )

질문 1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비교적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토가즈코/임상오 옮김, 『문화정책학』 서울: 도서출판시유시, 2004.
- 김문환,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서울: 나남출판, 1996.
- 김문환, 『지역문화발전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8.
- 김석준외, 『뉴거버넌스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반 퍼슨/강영안 옮김,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서울: 서광사, 1994.
- 아토오 야스오/이흥재 옮김, 『예술경영과문화정책』, 서울: 역사넷, 2002.
-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서울: 박영사, 2005.
- 이흥재, 『문화정책』, 서울: 논형, 2007.
-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서울: 진한도서, 2003.
- 조명환, 『국제관광문화』, 서울: 백산출판사, 2003.
-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서울: 나무와 숲, 2000.
- 최호준, 『시민의 도시』, 서울: 디자인 넷, 2000.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5.
- 제주특별자치도, 『제49회 제주통계연보』, 2009.
- \_\_\_\_\_, 『2010 문화관광교통스포츠현황』, 2010.
- 中川幾郎, 『分權時代の自治體文化政策 : ハコモノづくりから綜合政策評價に向けて』  
東京: 勁草書房, 2000.
- 後藤和子, 『文化政策學』 東京: 有斐閣, 2002.

### <연구논문 및 보고서>

- 강희수,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기획전공, 2008.
- 김문규, 「지역문화행정의 전개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1.
- 김미경,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략적 문화개발에 관한 방법론적 제안」,  
한국지방자치회보 제12권 제1호(통권 29호), 2000.
- 김천영, 「문화연구의 관리적 접근방법 탐색」, 한국지방자치회보 제14권 제1호, 2002.

- 김홍수, 「문화거버넌스 모형 평가에 한국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4.
- 문순덕,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의 효율적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9.
- 문순덕, 「제주도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09.
- 송시경, 「위원회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 용호성,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모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2006.
- 윤철상, 「21세기의 문화정책의 방향」, 서울, 국회의정보고정책자료집, 2002.
- 임고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정책 전공, 2006.
- 장경근, 「한국문화행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0.
- 정홍익, 「문화행정 연구」, 행정논총 제27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 정홍익, 「문화행정연구: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12권 제4호, 1992.
- 조광식, 「지역문화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7.
- 최경희,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활성화 방안」,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2008.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계획』, 2004.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도시 기본계획』, 2009.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문예연감』, 2009.
- \_\_\_\_\_,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집』 제4호, 2006.
- \_\_\_\_\_,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델개발』, 2008.
- \_\_\_\_\_,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증장기계획』, 2003.
- \_\_\_\_\_,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증장기계획보완용역』, 2009.

### <인터넷 웹사이트>

- 인천문화재단 <http://www.ifac.or.kr/>
-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index.asp>
-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u.go.kr/index.php>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index.dmw>

# **A Study for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of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Hee-song, Ko

Major in Cultur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Arts Managemen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dvisor: Professor Park, Eun-sil

Jeju-do went to meet the time of change through promotion, etc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after it was converted to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July 2006.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was a produc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s one of basic policies of the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past, the government policies had been pointed out that they remained function transfer or delegation of power on the one-way traffic method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a centralized development.

Conversion to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granting the high level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means conversion to locality focus from center focus. The rights of self-government in all fields except for diplomacy and security fields were granted to Jeju-do. In addition, physical and personal capitals are actively exchanged as the result of promoting international free city. These policies are based on the concept that Jeju's industrial structures are completely reorganized around tourist, medicine, education, the first purity plus advanced industry, etc through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s. These policies consider only strategic aspect of industrial productivity.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is not based on culture, may however become a storage area of the indecent cultural wastes globally gathered. Locality as a Jeju island is now transformed into a space to accommodate everything from the closed

space in the past. A cultural change along with change of extensity comes before us. The base of fundamental recognition of Jeju culture must now be established. On the base, culture suit to a new change must be created.

Culture is the right that Jeju residents have naturally enjoy in their lives and is also a factor for them to create and cultivate. So, promotion of culture becomes common object and subject of the government, citizens and corporations as three axles of composing the modern society. Especially, as culture is formed on the base of geological and spatial feature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largely affected by a geological scope.

In other word, trend of democracy, localization and pluralism of the modern society requires change of cultural policies of the nation and the locality. Ori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for formation of environment where creation and enjoyment of cultural art can be autonomously done on the bond of sympathy of recognition that the subject of cultural art is local residents must be determined. In such atmosphere, preparation of conditions that cultural art can be created and enjoyed ultimately in the public life by transferring power and responsibility that the nation has so far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or civil groups emerges as important policy subject.

Jeju had expectation that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system performed in the last 2006 would become important starting point to activate local culture. Such expectation was, however, ended as only disappointment due to following of the previous cultural policies. Thus, to promote a new change of cultural policies, the direction of the life culture is currently expanded toward increase of social interests in cultural lives of local residents.

In such an actuality, this study is attempted to present that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must establish local policies with vision and particularly play a role for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n the level of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o the end,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research results actually applicable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of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through three approaches as analysis of recognition. Software as well as 'so called'hardware i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area of culture and approaches in various aspects are required as the area of cultur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human spiritual world.

Thus,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cultural policies and discussed social position of culture in the aspect of function, cultural sphere and cultural governance. Features, scope and role of cultural policies were examined around cities in the metropolitan sphere. In the next, actual conditions such as structures and systems of the organization related with culture, construction of a local culture infrastructure and promotion of cultural events for the main scope of this study as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were examined for the actual survey.



Here, major object of decision and execution of cultural policies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s residents of the Jeju Island. Thus, this study examined recognitions and opinions for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cluding satisfaction degree for local culture for the object of residents of the Jeju Island.

On this study,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confronts necessity to obtain identity of the locality and excavate local features for forming conditions of cultural lives of local residents and has responsibility for serving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cultivation of cultural industry. Civil groups must also endeavor for activating local culture with strong passion for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excavation of the folk and local cultural arts to maximize cultural achievement degree of the locality in the terms of construction of a cultural governance.

